

속초 예술

The Magazine of sokchoArts & Culture

통권 제16호

2016



사단법인 한국예총 속초지회
www.artsokcho.com



바다정원
Pasta & Bakery Cafe

동해바다 여행의 맛과 멋



따뜻한 슬픔

도배를 새로 하려 벽지를 걷어내자
벽 한쪽에 살금이 나있다
꽃 속에 감추어진 상처 한 줄
아버지 몸에 난 수술 자국 같았다

어둡고 시린 곳에서
스스로 살을 찢어야 한다는 것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시든 꽃들을 뽑아내고
하얀 벽지를 입혀보지만
늑막한 마음 먼저 가 길을 내는 곳

기대면 눈 붉어지는 벽 하나 있다

상처마저 따뜻한 아버지의 등
오늘도 나는 그 벽에 기대
아버지와 한참을 그렇게 있다 왔다



최명선

2004년 『문학세계』 등단

시집 『기억, 그 따뜻하고 쓰린』 『말랑한 경문』

강원문인협회, 설악문우회 『갈매』 회원.

contents



어울림 • 50×60cm • 사이잘실, 염료 • 2015



표지작가 **고주리**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모전(청주예술의전당)
서울미술대상전(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한국여성미술제(이형아트센터) 한국여성미술100년전
남북코리아 여성 오늘전(국회의원 화관),
서울여류화가협회전(인사아트센터)
글로벌GAF북경전,
강원아트페어참가(춘천, 원주, 강릉)
뉴라이트코리아전(갤러리상)
한·독 아트디자인, 공예순화전(독일),
한국미술의 흐름전(미국, LA),
KASF전(서울무역컨벤션센터),
속초시문화상, 강원미술상 수상
현재 한국미협 속초지부장



03	권두시	따뜻한 슬픔 - 최명선
06	커버스토리	속초종합예술제 최초로 야외에서 개최 시민 및 관광객과 어우러져 큰 의미
12		속초문화진흥기금 조성방안 제언 - 정봉재
14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속초문화진흥기금' - 이병선
16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김종희
18	에인탐방	싱어송라이터 MC수(김영대) - 편집부
20		속초문인협회 극작가 최재도 - 편집부
22	예술산책 서평	무한세계에 대한 시인의 투시력 김향숙 시집「따뜻한 간격」의 시 세계 - 김춘만(시인)
29	회원특집	자료로 본 속초예총 50년 역사 - 장규호(예총 명예회장, 국제교류단장)
31		속초문화예술의 현 주소와 미래 - 김영대(연예예술인협회 사무국장)
33		글쓰기를 통한 마음치유 - 권정남(문인협회)
40		속초연극의 미래를 향하여 - 「카운터포인트」 제작을 통해 본 2016년 - - 이반(전 속초예총 회장)
43		사진가의 미학적인 주관의 작품을 담아낸다 - 임흥빈(산악사진가)
48	표지작가	나의 작품소재는 자연 - 어울림 - 고주리(한국미협 속초지부장)
49	미술이야기	파도 2012년 - 박혜정
50		영원한 사랑 - 조정남
51		어우러짐 - 최금란
52		수확의 기쁨 - 최월순
53	사진 지상展	백두산 여행- 고명녀
54		빅토리아 연꽃 - 김용환
55		울산바위 구름 - 윤진순
56		인류 무형문화유산 기사(騎射) - 최수홍
57		무릉도원 - 방윤(方潤)
58		챔피언은 누구?
59		햇빛은 두만강반을 비춘다 - 허 선 행(許先行)

2016 속초예술

한국예총 속초지회 통권 16호
www.artsokcho.com



60	시가 있는 이야기	혼자 국수를 삶으며 - 김춘만
61		탱자 - 조인화
62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정영애
63		나의 바코드 - 송현정
64	수필	늪 - 최효선
66	해외방문 후기	제2회 훈춘청소년문예대회 및 합동공연 - 편집부
70		속초예총 제2회 훈춘시 문예대회 대상 작품 및 심사평
73		속초등대 문화행사 - 편집부
75	백일장 우수작	제27회 설악학생백일장, 제22회 설악주부백일장
88	제51회 설악문화제	문인, 미술, 연극, 사진작가협회 주관해 성공리 마무리
92		제3회 올드 & 뉴 스마트폰 촬영대회 및 전시회
102	속초예총 이모저모	한국예총 속초지회 올해(2016)는 - 편집부



한국예총 속초지회

속초시 번영로 155 (속초문화회관 내)
TEL.(033) 631-8070
FAX.(033) 632-8072
E-mail. art8070@hanmail.net

발행인 정 봉 재

발행일 2016.11.30

편집인 이 수 영

<비매품>

이 책은 강원문화재단, 속초시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초종합예술제 최초로 야외무대에서 개최 시민 및 관광객과 어우러져 큰 의미

「모두가 함께하는 속초예술」이란 주제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기념해 열린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는 처음으로 야외광장에서 매머드한 무대를 조성하고 야간공연에 어울리는 조명을 설치해 공연다운 공연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속초예술계 예술인들이 도민체전을 기회로 속초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 속초예술의 종합축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제27회 설악 학생미술작품 공모

속초미술협회가 지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속초, 고성, 양양 유치원(미술학원생)·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7회 설악 학생미술작품 공모」에서 총 2,800여점이 응모해 심사결과 고등부의 경우 금상1, 은상2, 동상5, 장려상12, 입선3명, 중등부의 경우 금상1, 은상3, 동상5, 장려상10, 입선11명, 초등부의 경우 1~2년은 금상2, 은상5, 동상11, 장려상17, 입선149명, 3~4년은 금상2, 은상5, 동상9, 장려상17, 입선104명, 5~6년은 금상2, 은상5, 동상10, 장려상17, 입선35명이었으며, 유치부는 금상2, 은상5, 동상



10, 장려상17, 입선114명이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작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2전시장에서 열린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에 전시했다. 공모전 수준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러시아학생 작품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평이다. 무엇보다도 공모전 우수학생 7명이 러시아민속예술단 미술부 학생과 교류한 것도 매우 유의미했다.

제27회 설악학생백일장 및 제22회 설악주부백일장



속초문인협회 주관의 제27회 설악 학생 백일장 및 제22회 설악주부백일장이 지난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엑스포 분수대 광장에서 초등 저학년22명, 고학년129명, 중학교69명, 고등학교58명, 일반(주부)42명 등 총 320명이 참가해 열렸다.

이날 시제는 초등 저학년은 동그라미, 풍선, 방초등이었고 고학년은 노래, 손, 의자였으며 중등부는 줄, 사진, 주머니, 고등부는 1년, 불, 선물, 일반부는 상자, 소울-푸드, 돌부리였다. 속초문인협회 소속 회원 13명이 심사를 통해 초등 저학년 시부9명, 산문부3명, 초등 고학년 시부35명, 산문부19명

중등 시부25명, 중등 산문부17명, 고등 시부21명, 고등 산문부17명, 일반부(주부) 시부19명, 산문부13명 등 총 178명이 수상했다.

연극 <카운터포인트> 공연

속초연극협회 주관의 연합팀 연극 <카운터포인트-소현세자, 흔적과 표적> 공연이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저녁 7시 2회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반 작, 변유정 연출의 연극 <카운터포인트-소현세자, 흔적과 표적>은



16세기 청나라가 조선으로 쳐들어와 남한산성을 함락하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수모를 겪고 조선의 세자 소현과 왕자들 그리고 귀족자제들이 볼모로 청나라에 잡혀가는데서 시작된다. 청나라는 명나라로 쳐들어 가기위해 조선군 파병을 강요하는 등 조선에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지만 볼로 잡혀간 조선의 세자 소현은 청의 요구에 맞서 조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소현은 폐허가 된 명의 수도 북경에서 독일 신부 아담 샬을 만나게 되고 신부가 전해 준 서양의 발달된 과학과 문명을 접하면서 조선으로 돌아가 나라의 개혁과 과학화를 시도하리라 다짐하고 조선의 번영을 꿈꾼다. 하지만 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권력을 탐하는 수구세력과 주자학을 지키려는 인조와 맞서게 된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돌아온 지 두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줄거리이다. 제33회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해 강원도대표로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해 영예의 금상과 무대예술상을 수상했다. 전국대회를 앞두고 최종 리허설 성격을 띤 속초종합예술제 기념 연극공연에 구름 관중이 몰려 대극장 2층까지 만석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제21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속초미술협회 주관의 제21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일본 요나고시의 초등학교생30점, 중국 훈춘시 초등학교생(제1 실험소학교)20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카발레로보 예술학교20점, 제27회 설악 학생미술실기 공모사업 상위 수상작 150여점 등을 전시해 6백여명이 관람했다. 올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카발레로보 예술학교 미술부원들이 직접 자기작품을 감상했고 우리 학생들과 미술을 통한 교류도 해 매우 의미가 깊었다.

속초사진작가협회전 및 포토 존



야외사진전 옆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중국무용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속초사진작가협회 주관의 제11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부제 설악, 그리고 삶)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엑스포광장 야외에서 열렸다. 속초사진작가협회 작가 48명이 작품 49점을 출품해 1,500여명이 관람하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울산바위 사진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진촬영은 물론 인화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속초예총과 8개 협회가 주관한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부제: 모두가 함께하는 속초예술)이 지난 6월 8(수) 밤 7시 30분부터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식전행사의 개막 곡으로 국악협회 속초지부 회원인 런갯마당이 상모 판굿을 공연해 참석한 시민들과 기관단체장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성을 받았다.

속초문인협회의 시낭송이 이어졌고 무용과 팝핀 콜라보레이션과 한국무용 「설악의 향기」가 이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속초음악협회의 금관 5중주단 연주도 관객들을 클래식 세계로 안내했으며 마지막으로 등장한 우리 지역가수 이재환씨의 무대는 앙코르 요구를 받기도 했다.

개막식 공식행사로 국민의례와 속초예총 회장의 개막선언, 시장, 시의장의 축사가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내빈소개에 이은 테이프커팅이 있었다.

식후행사로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가 출연해 20여분 동안 청중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특히 속초문인협회가 개막식 이전에 현수막으로 시화를 걸어 많은 관객들이 본 공연 전에 관람했고 사진전도 무대 정면에 배치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은 제51회 강원 도민체육대회를 기념해 열려 그 어느 해보다 내용도 풍성하고 특히 27년 중 이번 종합예술제 개막식에 가장 많은 관객들이 운집했다. 야외공연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열린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은 좀 더 시민에게 다다갈 수 있는 속초예술이 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전홍보에 충력을 다해 최초로 시내 도로 선거운동 요지에서 1인 피켓 홍보를 일주일 동안 벌이기도 했다.



속초음악협회 주관의 2016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지난 6월 10일 저녁 7시30분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퍼니밴드 공연을 했다.

퍼니-밴드 공연은 2002년 그룹 결성 후 대중적 연주곡, 쉽고 흥겨운 연주,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결합해 어렵고 접하기 힘들다는 클래식의 고정관념을 자신 있게 깨부수는 활동을 해왔다. 정형화된 클래식 연주 모습에서 벗어나 연주자 모두가 흥겨운 몸동작과 퍼포먼스로 관객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공연을 찾은 200여 명의 관객들을 신명나게 했다.



제41회 속초미술협회展

속초미술협회 주관의 제41회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전(부제 설악 이야기)이 지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려 회원 30명(한국화 6명, 서양화 14명, 조소 1명, 공예 3명, 서예 6명)이 출품한 작품 60여점을 전시했다. 올해 전시회의 참관인원이 1,000여명에 달해 장르별 수준 높은 설악의 풍광과 서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6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제27회 설악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본선

속초연예예술인협회 주관의 제27회 설악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본선이 지난 6월 11일 저녁 7시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설악권내 중·고교생 1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끼 있는 아이들의 당돌한 대반란이란 부제로 시작한 이번 제27회 설악청소년가요댄스 경연대회 본선은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 속초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예심을 통과한 13팀이 출연해 경연결과 대상은 설악고와 속초고 연합팀인 연꽃이, 금상은 속초여고, 속초고, 설악고, 양양고 연합팀인 속초사랑이, 은상은 속초여고 춤생 춤사가, 동상은 방송통신고팀, 장려상은 속초여고팀, 응원상은 동광산업과학고 인빈서블팀이 각각 차지했다. 올해 개최된 청소년가요제 역시 지역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참가자들의 향상된 경연수준과 만석으로 진행된 관객 수가 이를 말하고 있다. 가요, 댄스, 밴드 3개 부문으로 균등하게 배분해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유도해, 경연을 보러온 관객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야외 특설무대에서 진행했기에 참여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

2016설악청소년무용제 (러 청소년 민속예술단 합동공연)

속초무용협회 주관의 2016설악청소년무용제가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3백여 설악권 학생 및 주민이 참관한 가운데 열렸다. 러시아 청소년민속예술단이 속초를 찾아 속초무용협회와 합동공연을 했는데 한국무용, 발레, 실용무용, 러시아 민속무용 등 다양한 공연



을 펼쳤다.

제13회 속초국악협회 정기연주회 「춤, 소리로의 초대」

속초국악협회 주관의 제13회 정기연주회 「춤, 소리로의 초대」가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려 타악 퍼포먼스로 리듬파이터, 비선류와 퓨전국악으로 혼돈 속의 사람들, 왈츠NO2, 련을 연주했으며, 태평소협주곡 뱃노래, 사물놀이, 춤의 소리로의 초대 「한량무」, 상모 판굿 「소리 날려 흠여지고」를 연주해 300여명의



관람객들을 매료시켰다.

당초 6월 12일 저녁 7시 30분에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열 예정으로 리허설까지 마친 상태에서 폭우로 인해 끝내 공연을 하지 못하고 이날로 연기해 정기연주회를 한 것이었다.

올해 처음 야외에서 개최된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각종 행사는 속초예총 8개 협회의 행사가 속초시민에게 녹아들어 동참과 호응 속에 모두가 함께하는 속초예술의 가능성을 심분 보여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향후 속초종합예술제의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속초예술**





속초문화진흥기금 조성방안 제언

정 봉 재 | 한국예총 속초지회장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돼 속초시는 지난 7월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속초시는 따라서 지난 9월 속초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속초시문화진흥기금 모집추진단을 발족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에 나섰다. 속초시문화진흥기금 모집추진단은 지역의 기초예술 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과 향토기업, 출향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금조성활동을 펼치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 단체를 결정하는 문화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기능도 병행한다. 문화진흥기금 기부금 출연 시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해주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문화진흥기금은 민간이 주도해 모집하는 만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에 지원하며 문화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기업의 이미지 홍보에도 적극 지원한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 벤치마킹하자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을 길러준 고향을 위해 기부하고 이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을 근거로 장려하는 제도이다.

많은 이들이 더 나은 고등교육 기회와 직업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향한다. 그 결과 이들 고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산업이 위축되고 주민세·법인세 등 세수도 줄어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면서 지역 활력이 저하됐다.

이를 해소할 대안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고향 납세제도」이다.

「고향 납세제도」는 개인별 기부금 액수는 정하지 않지만 공제 상한액을 두고 총소득의 30%까지 세금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공제된 세금이 기부자가 지정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은 납세자가 지정하는 지역의 교육·관광·스포츠·문화 진흥 등 다양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지자체별로 「고향 납세제도」를 통해 조성한 기금 사용처를 사전에 공지하고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정 사업이나 사용처를 선택해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기부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기부 동기 중 하나였다.

국회의원들,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입법 활동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활발하다.

대표 입법 발의자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 건축자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건축물의 건축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로 회화·조각 등 미

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그 돈의 액수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연대상을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한정해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도 반드시 국가에만 기금을 출연하도록 돼있는 현행법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20여년이 흘렀고 행정,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방자치의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주가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되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재정도 튼튼해지고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건축주의 자부심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속초예술**

문화진흥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

구분		한도액	비고
법정 기부금	법인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개인)
	개인	(당해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특례 기부금	법인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50%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법인) -박물관,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	(당해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지정 기부금	법인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한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포함)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
	개인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20%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속초문화진흥기금’

이 병 선 | 속초시장



문화 예술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화예술의 진흥이 지역민들에게 고유의 가치를 실현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과 승계, 발전은 지역의 창조적 표현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며 문화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지자체의 재원이 한정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속초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속초문화원, 속초예총, 속초민예총 및 민간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모집추진단’을 발족하여 지역문화진흥 기금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모집추진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과 향토기업, 출향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금조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금모집 추진단은 조성된 기금을 심의하여 지원 단체를 결정하는 문화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도 병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2015년) 통과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자체가 개인, 법인으로부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위한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지난 7월 8일 제정, 공포된 「속초시 문화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이제 법령에 따른 제도와 조직을 마련하였으니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사회참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자체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지역예술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위해 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가치만큼이나 시민 수혜 폭의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도시 속초는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할 희망의 종착역이다. 그곳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예술인은 안정된 창작환경의 기반 위에서 뛰어난 창작품을 만들어 내고, 행정은 시민과 예술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의 발전은 문화예술을 자양분 삼아 관광과 산업에 있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속초 문화진흥기금 조성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 지자체, 문화예술단체, 시민 모두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제 그 첫걸음을 뗀 만큼 문화예술단체도 기금 모집추진단과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해본다. **속초예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 종 희 | 속초시의회 의장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은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관람 성숙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와 예술의 파급성은 수도권 집중화를 넘어 이제는 지방의 소도시까지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는 행정이 미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속초연합팀이 「카운터포인트」란 작품으로 금상과 무대예술상을 차지했으며 속초시립풍물단과 강원도 내 전통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유)런갯마당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은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징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적 시스템 즉, 공연시설이 너무 열악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거나 문화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새롭게 무엇을 시도해보려는 창조정신 부재, 부족한 예산, 전문가 부족, 앞에서 언급한 열악한 시설 및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행사와 마을단위에서

주관하는 일부 축제는 콘텐츠와 행사기획의 미흡으로 인해 기대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 추진하던 일부 축제와 문화행사는 특정계절에 편중된 난제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콘텐츠 부족으로 폐지되거나 지속성 없이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역시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관광형 문화축제로써 상품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속초시의회가 집행부에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위해 올해는 개최하지 않고 전국의 성공사례 심층 분석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경험이 바탕이 돼 이런 토대 속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과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며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생활문화 활성화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해 그 가치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기획인력 양성 등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진흥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속초시는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4계절 관광지로 관광성수기라 일컫는 여름과 가을의 자연경관 외에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의 관광형 문화예술이 부족한 실정으로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체류형 콘텐츠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발전방안이 담긴 중장기적인 속초지역 문화예술 진흥계획이 수립되고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난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모태로 「속초시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2016년 7월 8일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속초시와 속초시의회,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집약된 의견이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련된 각종 정책 속에 충분히 녹아있어야만 예산확보는 물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수준 높은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 수상한 「카운터 포인트」



북청사자놀이 공연

문화예술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상업적 예술만을 고집하는 현대의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이으며 서로 화합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주고 삶의 질을 바꾸는 문화예술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속초다움의 문화예술, 시민과 호흡하는 문화예술,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역예술인과 함께 우리 모두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속초예술

싱어송라이터 MC수(김영대)

MC수, 본명인 김영대보다 더 친숙한 이름이다.

MC는 리듬에 맞춰 가사를 전달하는 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수는 빼어날 秀. MC수는 따라서 빼어난 랩 가수를 의미한다고.

MC수(김영대)는 1979년생으로 올해 38세. 청호동 1통 신포마을 태생으로 청호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속초중학교 3학년 다니다 중퇴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못

하는 성격이라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고 기계 다루는 방면에 소질이 있어 17세부터 서진오토바이센터와 설악오토바이센터에 5년 정도 근무했다고 한다.

5대 독자로 군 면제를 받은 후 24세에 동해주류에서 2년간 주류 배달을 하다 서울에서 의경 근무하면서



음악동아리 활동을 하는 문대영이란 친구에게서 랩이라는 장르를 처음 알았다고. 당시 DJ턱, 드렁큰타이거 등이 래퍼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때였다고 한다.

26세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껏 벌어 저축한 돈으로 음악에 올인하기로 결심한다. 혼자 가사 쓰는 연습을 하면서 S-ONE이란 팀을 만들어 아남프라자 벤치, 엑스포공원 등지

에서 남호섭, 김문성 등과 춤으로 거리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소나」라는 작곡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조정모란 분에게 녹음하는 법을 배웠고 인터넷 강좌로 작곡법도 배웠다고. 작곡에 필수인 피아노 반주로 인터넷으로 배우고 기타는 책으로 터득했다.

나이 30에 주변 음악 친구들이 현실에 순응해 각자 직장으로 대학으로 가수로 제 갈 길을 가고 MC수(김영대)는 2009년 첫 앨범 「단발머리」(2곡 수록)를 냈고 2011년에 트롯가수 김현미 첫 싱글앨범 「간다간다」를 작사, 작곡했고 이어 2집 싱글앨범 「가버려」도 작사, 작곡했다고.

2015년엔 본인의 2집 싱글앨범 「삶」을 냈는데 이미 10년 전에 쓴 곡을 이때 취입했다고 한다. 2016년 올핸 힙합가수 엘리펀디가 부르는 「모두 다같이」를 작사, 작곡(랩은 엘리펀디가 만들)했다고.

곡을 쓰기 위해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는데 속초문화원 등에서 녹음작업을 하러 오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해서 2011년 조양동에 사운드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7월 영랑동에 「스위트 비트 사운드」란 스튜디오를 오픈해 MC수(김영대)가 대표로 있고 김현미가 부르는 「못잡아도 고」를 작사, 작곡한 한민우가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나니 속초문화원, 무용협회, 연극협회 등에서 녹음하러 방문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MC수(김영대)는 올 겨울까지 엘리펀디의 앨범작업 중에 있고 속초시 홍보를 위해 속초만의 정서가 담긴 곡을 쓰고 싶다고 한다. 그는 현재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형! 지방에서 음악활동 계속하려면 음악 빼고 다 잘해야 해요.”

친한 동료 뮤지션이 심심찮게 하는 말이란다.

“속초를 근거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분



야를 가지고 자립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켓 자체가 형성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유형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하는데 수요자는 공급자를 찾기 어렵고, 공급자는 반대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영동지역에서 힙합이라는 장르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도 많은 횟수의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속초에도 힙합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공연마켓이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공공기관의 꾸준한 지원과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력,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바람을 전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소극장 형태라도 변변한 공연장하나 생기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지방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꽤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 외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왜 MC수(김영대)의 이 말이 이토록 절규에 가깝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속초예술**



속초문인협회 극작가 최재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하인리히 뵐을 비롯해 「고도를 기다리며」의 사무엘 베케트, 「양철북」의 귄터 그라스, 해롤드 핀, 막스 프리시, 뒤렌마트 등 세계적인 문호들이 오랫동안 라디오 작가로 활동해왔다.

올해로 40년째 라디오 극작가로 활동 중인 극작가 최재도(59)는 이제 전국구가 아닌 국제적인 작가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 출발은 이미 「KBS무대」에 방송된 「144번째 날의 아침」 대본이 지난 1991년 동유럽에 수출된 것(라디오드라마 대본 첫 해외진출 사례)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강원도 도립극단 2015년도 정기 순회공연작인 「DMZ동화」의 극본은 라디오드라마 「144번째 날의 아침」을 토대로 재탄생한 작품이다. 시계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간 군상들의 행동과 전체주의를 우화하는 우

회로를 통해 통렬히 비판하며 오직 한반도에서만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음을 최 작가는 안타까워한다.

요즘 소설책을 대본화해 TV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례가 부쩍 눈에 띈다. 외국의 사례처럼 방송극본이 유명한 소설책으로 거듭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최재도 작가는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그동안 집필한 라디오 극본을 소설로 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극작가 최재도는 속초고등학교(22회)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퇴하고 지난 1977년 KBS 라디오드라마 현상공모에 「천사의 저주」란 작품으로 당선돼 극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1983년 계몽사 아동문학상 동극 부문과 1985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각각 당선됐고 85년 그해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에 취임해 92년 8월까지 근무하다 92년 9월부터 속초시 별정



6급 문화전문위원으로 5년 재임하면서 공설운동장에서 동별 체육대회로 진행되던 기존 설악제를 설악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해양과 산악, 실향민축제로 나눠 문화적인 콘텐츠를 확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7년 6월 공직을 나온 극작가 최재도는 이때부터 명실상부 전업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1996년 6월 광주광역시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연극제에서 극작가 최재도가 쓴 연극 「그대여 또 다시 바다로 가거든」(연출 장규호, 극단 굴렁쇠)이 금상을 받았다. 「그대여 또 다시 바다로 가거든」은 지난 1990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극화한 작품이었다. 또한 극단 굴렁쇠와 함께 작업한 「붉은 훈장」이 2006년 제24회 전국연극제에서 단체 금상과 최우수연기상(김귀선)을 수상했다. 최작가는 이 작품으로 희곡상을 받았다. 「붉은 훈장」은 북한 인민군장교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북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남한에 정착해 사는 주인공 장일권의 모습을 통해 통일한국시대 개막을 앞두고 이념적 가치관의 혼돈을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작품이다.

이렇듯 극작가 최재도는 失郷이라는 전쟁의 상흔을 안고 생계를 위해 바다와 싸우는 속초사람들의 애환을 작품에 천착했다.

극작가 최재도는 지난 1998년 12월 31일 첫 희곡집 『멈춘 곡선의 우아한 고독』(2012년 12월 3판1쇄 발행)을 발간했다. 최작가는 이 책 머리말에서 단막희곡 『멈춘 곡선의 우아한 고독』이 구상된 계기를 이렇게 썼다. “태초에 권력은 어떻게 창출되었을까. 그 권력은 어떤



원리에 의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진 채 화장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나는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다. ‘권력’과 ‘배설’의 공통점, 곧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늘 닫혀 있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개방과 폐쇄’의 이중적 속성을 지닌 권력과 닮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보니 배설의 욕망이 통제당하는 상황을 그려내면 권력의 생성과 분배 과정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일련의 행태를 나열하면 사회 구동의 한 원리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극작가 최재도는 2012년 12월 두 번째 희곡집 『꿀벌의 바벨탑, 그 시도에 대한 고백』을 펴냈다. 그는 이 책 머리말에서 “비록 아직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렇듯 해매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깨달음의 정도가 깊어져 내가 찾아낸 공식들이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하여 내 드라마가 최소한 ‘역사와 사회의 구동원리’는 설명할 수 있게 되길”소망했다.

최작가는 그동안 전용집필실이 없어 원주 토지문화관 등 전국으로 옮겨 다니며 글 쓰는 작업을 해오다 드디어 지난 8월 속초인근 용춘 해변에 위치한바다정원 별관3층에 개인전용 집필실 겸 창작의 본산이 될 『이야기 제작소(Story Factory)』를 열었다. 이곳에서 그는 향후 전도유망한 이야기산업의 꽃을 활짝 피우려고 한다.

극작가 최재도는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협회 한국본부,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희곡작가협회, 속초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철학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속초예술

서평

무한세계에 대한 시인의 투시력

- 김향숙 시집 「따뜻한 간격」의 시 세계 -

김 춘 만 | 시인



누구나 현실적인 세계와 비현실적인 세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사실 복잡한 것 같아도 질서가 있다. 그 흐름이 보인다. 봄이 아무리 오묘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아름다운 꽃을 만발시켜 온 세상을 바꾸어놓아도 우리는 이내 여름이 다가옴을 생각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현실 세계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온갖 사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무한 세계에 대한 변화와 혼돈을 투시하는 시인, 김향숙 시인의 시편을 받아들이고 처음 떠오른 생각이었다.

김향숙 시인과 함께 동인활동을 하게 된 2000년 이후 그러니까 16년간 그의 절제된 모습과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익어가는 과일에서 숙성돼가는 향기가 배어나듯이 그의 곁에 있으면 좋은 냄새가 점차 짙어지고 있었다. 김향숙 시인의 시를 읽으며 그가 관조한 비현실의 세계와 짙은 과일향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다. 그가 사랑하고 가슴속 깊이 담아둔 화진포와 거진의 얘기들,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에

대한 경탄과 그것을 받아드리는 겸손한 자세는 이 혼탁한 세상에 보내는 정갈한 메시지였다.

꽃을 스쳐 지난 바람이
아직 향내를 품고 있는 동안
너무 가까워서 또는 너무 멀리서 말고
우리 그저 따뜻한 간격에서
그렇게 기억해주자
- 「바람은 향기로웠다고」 부분

시인의 첫 시집 제목으로 붙여진 '따뜻한 간격'이란 시구를 만나게 하는 이 시에서 시인은 단정적이고 단호함을 거부하고 있다. 너무 가까워서 또는 너무 멀리서 말고의 거리를 '따뜻한 간격'이라 칭한 시인의 마음가늠이 눈에 선하다. 이는 흡사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떳떳한 자세를 중시하던 동양 철학의 중심인 중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시인의 일관된 시 창작정신과도 이어진다.

낙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이란 말이 있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로 즐기되 지나치게 빠지지 말고, 슬퍼하되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감성의 표현을 극도로 절제해야하는 예술활동에서 이처럼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따듯한 간격’이란 구절이 두고두고 되씹어지는 이유다.

유사한 이미지로 읽히는 시가 「달빛 신호등」이다. 순간적인 조화로움에 경탄하는 시인의 마음에도 알맞은 간격의 그 무엇인가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마주 선 신호등 노란불 두개 사이에
보름달이 끼어들었다
놀랍도록 알맞은 간격의 크기와 밝기
- 「달빛 신호등」부분

김향숙 시인의 「사과 씨」는 가슴에 깊이 가라앉은 명편의 시다.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큰 울림이고 간결하지만 파장이 넓게 퍼진다. 좋은 시의 요건을 일컬을 때 ‘상상의 질’이 맑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 시를 읽으며 그 말이 떠올랐다. 이런 시는 심성이 맑아야 만날 수 있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좋은 시다. 껍질과 과육에 묻혀있던 사과 씨가 투명하게 내비치는 모습은 시원하다. 큰 장식 없이 사과 씨를 찾아가게 하고 결국 우리 내면의 자아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김향숙다운 시로 진실성과 소박성을 꼽는다면 절실한 내용과 깨달음의 언어로 빛어내는 그의 시정신은 주목받아 마땅하다. 이토록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낸 그는 계간 「시현실」에서 시인의 등단절차를 마친다.

여기에 있었구나
사과의 눈은 이 안에 있었구나

단 한 개의 눈으로 땅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눈이 되어 열매들 속에 태어난 뒤
한 번도 감은 적 없는 사과의 눈

깊은 심장 안에서 까아만 눈 크게 뜨고
바깥보다 내 안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과는
착한 맛으로 익어왔구나
- 「사과 씨」 전문

김향숙 시인과 첫 만남을 하던 해, 동인지에 실었던 10편의 시 중 몇 편이 그의 첫 시집에서 선택받았을까? ‘바다가 가득한 창문을 마주하고 사는 일은 나에게 참으로 은혜이다. 파도에 자주 발목 잡혀 시린 소금발로 걸으면서도 바닷가에서 고운 조개를 찾는 일처럼 시를 쓰는 일 또한 은혜이다. <빛있을 동안 빛 가운데 거하라> 바다가 파도의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첫 작품노트에서 시인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 은혜는 온전히 자연에 다가갈 수 있었던 그의 시심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다. 그 ‘은혜’로운 한편의 시가 선정된데 대해 반가운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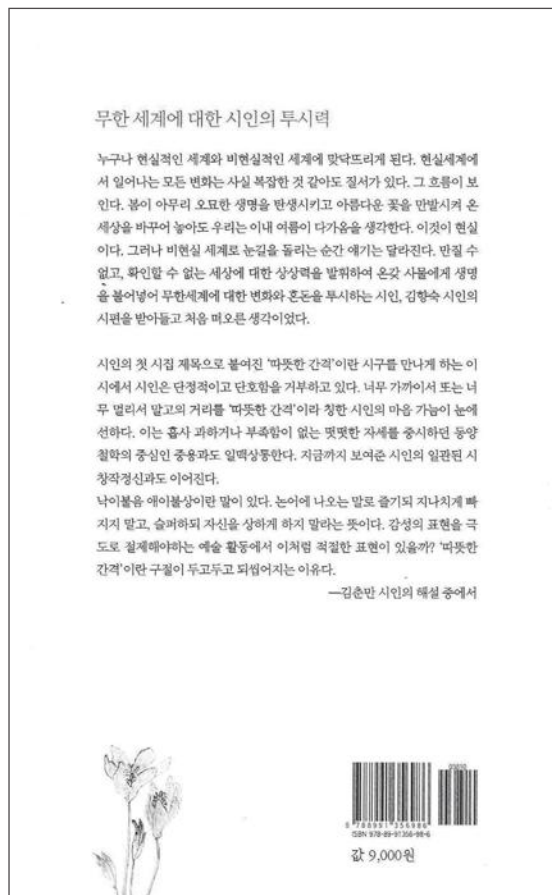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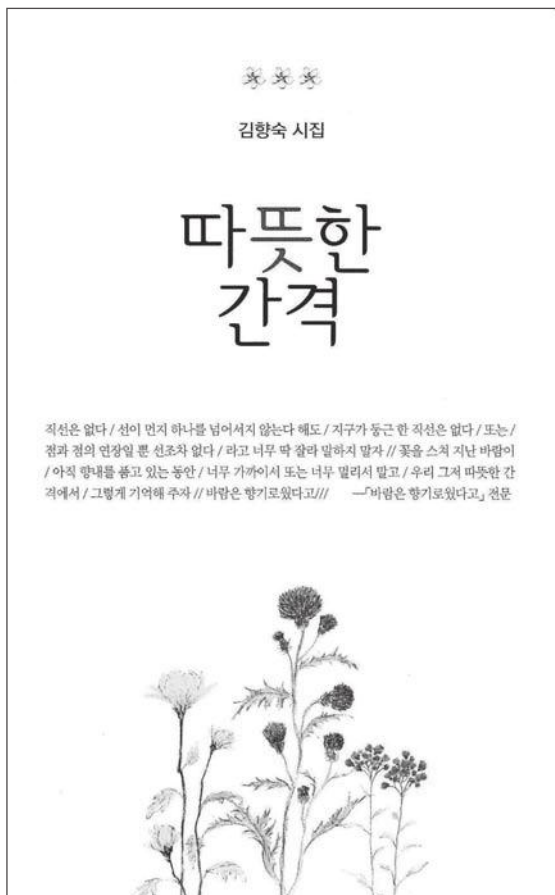
겨누지 않고도
은혜는 고요하게 다가와
불 지핀 창마다
빛맞은 생채기들 서로 어루만지는
낮선 마을

숙이고 걸어가는
신열의 침묵을 위해
서늘한 손
이마 짙어오는 하얀 깃발들
- 「첫눈 여행」부분

신열이 든 시인에게 서늘한 손으로 달래주는 첫눈의 은화로움, 불 지핀 창마다 어루만져주는 저 넉넉함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맑은 시심이 잡힐 듯 보인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사하는 시편은 「달빛 밝아」에서도 만날 수 있다.

머리맡 공책 더듬어
연필로 쓴다
‘달빛 밝은데 왜 눈물이 날까’
라고

‘지금 저 달빛에 젖어있는
생명 있는 눈빛들을 사랑해’
라고
- 「달빛 밝아」부분



시어의 의미와 실재는 어떠한가. 시인이 언어화시킨 의도적 의미는 작품에서는 실제적 의미가 되고 그것을 독자가 읽으면서 해석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실 시인의 의도적 의미가 실제적 의미나 해석적 의미까지 투명하게 관통되기는 쉽지 않다. 시인의 상상은 매우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감성의 덩어리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다. 이런 감성을 작품에 담아내는 일도 힘들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으로 읽히게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진눈개비 내리는 이른 아침/작은 이삿짐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중략//무사히 닿아 고단한 짐 풀 때쯤이면/이 눈이 그쳐있기를/처음 잠깐 낮선 집에서의 아침이/부디 행복하기를//— 「누군가 이사를 간다」 부분

이 시는 너무도 평범해서 지나치기 쉽다. 무엇을 강조하거나 번뜩이는 게 없기 때문에 속 울림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곁에서 보아온 김향숙 시인은 꽃과 나무를 아주 잘 가꾸고, 동물을 사랑한다. 무엇보다도 이웃의 아픔을 잘 알

아차린다. 이는 오랜 봉사과 믿음의 생활로 형성된 심성이기도 하거니와 시인의 본성이다. 진눈개비 내리는 아침, 이사를 가야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는 보드라운 속마음 한 자락이 이 시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눈이라도 그쳤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시인의 마음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발한 시를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멋진 비유를 가르치고 형식에 속박받기 시작했다. 시는 시인의 마음을 정제시킨 한 그릇의 물과 같아서 담는 용기에 따라 그 형식이 변할 뿐이다.

밤 지새워 편지 하나 써볼까/날 밝으면 한가하게 우체국 창가에 서서/우표 하나 붙여서 띄워나 볼까/자전거 탄 우체부를 기다려/가슴 저린 그대의 답신 밤새도록 읽고 또 읽어볼거냐//그리운 사람 하나쯤 큰 산맥 너머에 있다고 하고. — 「편지」 부분

이런 순수한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시인이다. 이 그리움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온갖 사물이 될 수 있다. 그 온갖 것이 저마다 갖추고 있는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리라. 그러나 사람은 그 사물들이 지닌 고유의 품격과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편하게 변형시키거나 소멸시킨다. 김향숙 시인의 사물 시를 찬찬히 읽어보면 온갖 것에 가치를 존중하자는 생각과 그들과 화(和)하자는 정신이 가득하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인간과 사물이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인들이 이르고자 하는 지고지순(至高至純)의 고지일 것이다.

이 세상 생명 있는 누구에게든
쓸쓸한 죽음이란 없다

풀꽃 하나 딱정벌레 한 마리
어둔 밤
갈숲에 깃 여미고 숨을 다한 물새 한 마리

세월의 임종을 위해
별은 저리도 애처롭게 서있고
바람은 부드러운 손으로
그들의 눈을 감겨주는 것이다
- 「그저 그렇게 알고 살기로」부분

‘설거지도 못하고 약을 먹고 누워서/설거지도 못하고 약을 먹고 누워계시던/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시인은 옛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순한 딸이고 ‘우리 엄마/웃으시는 게 보기 좋아//나는 자꾸 출랑거리고/ 엄마 옆에 누우면/낮잠도 달다//’는 예쁜 딸이다.

남도로 이사를 간 형제자매거나 그 누구인가가 그리워 마음 한쪽을 그곳으로 기울여놓고 큰 산맥 노을 붉은 저녁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시인의 고적한 마음도 드러낸다.

김향숙 시인의 숨겨진 재주 중 하나는 집 짓는 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낼 지어질 집 모양을 직접 그릴 줄 알고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목수들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은 시인의 집을 두서너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봉포리 집을 방문했을 때 이층에서도 바깥쪽으로 조그맣게 따로 빼내어 툇 불거지게 만들어놓은 시인의 방이 인상적이었다. 혼자 있기도 좋고 별과 바람과 대화하기도 좋았을, 동화 속에서도 나옴직한 방에서 시인은 책을 읽고 시를 썼으리. 다시 시인이 용암리 산자락 아래로 새 집을 지어갔을 때 오목조목한 지붕들과 바깥 풍경을 고즈넉이 받아들이는 예쁜 창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 창을 통해 자연의 아름

다움을 감상하기도 했겠지만 살점을 에어내는 고통들을 조금씩 털어내기도 했으리라. ‘축제 끝난 큰 산맥 깊은 골짜기/한 그루 나무로 싹틔워 자란다 해도/누군들 알랴//내가 누구인지/그대가 누구였는지’ 신평벌에서부터 동해로 흐르는 그곳 바람에서는 무엇이든지 잘 말리고 잘 날려 보낼 수 있었을 테니.

김향숙 시인의 간결하면서 함축미가 돋보이는 시로 「나무의자 한 그루」를 들 수 있다. 온갖 사물과 어울리자는(和) 정신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투시력이 또 한 번 발현된 시로 명작이다.

오래된 벚나무아래
나무의자 하나를 내어놓았다
시집을 덮어두고 차를 끓이러 들어온 창문너머
쓸쓸해 보이는 나무의자의 풍경
그래, 예전엔 너도 나무였구나

성장 멈춘 관절마다 썩기 옥다물어
있눈 띄우던 수액의 향을
힘겹게 잊어냈을 마른 옹이들
직선의 어깨위로 바람은 지나 먼 숲으로 가고...

김 서린 창문너머
하얀 꽃눈처럼 내리는 벚나무아래
시집 가슴 얹드려 읽어주는 시를 듣고 있네
나무의자 한그루
- 「나무 의자 한 그루」전문

논리와 분석, 합리적 사고가 주류를 이루는 현대적인 패턴에서 나무의자 하나 가만히 바라보던 시인은 상상의 응축을 통해 무심히 지나칠 뻔했던 의자 하나를 기막히게 살려놓았다. ‘그래, 예전엔 너도 나무였구나.’ ‘나무의자는 나무입니다.’를 수백 번 강조한 것보다도 단박에 가슴에 전해지는 이 깨달음의 한 마디가 이 시를 명료하게 하면서도 따뜻하게 하는 힘이다. 어쩌면 지금 맘껏 꽃 피우고 있는 벚나무의 아비썩이 될 수도 있었을, 이 나무의자의 마른 옹이박이들은 한의 증표가 아닌 아름다운 훈장의 무늬로 바람을 어깨로 받아내며 지금은 아주 순하게 시를 듣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사람 앞에서.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겠는가만 시인은 남다르게 꽃을 좋아한다. 어떤 꽃이던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것의 생리를 잘 알아차리고 그것들과 소통하려고 한다. 화려하게 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 꽃을 피워낸 뿌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나는 한 번도/내가 피워낸 꽃을 본 적 없지만/꽃과 열매와 씨앗의 추억/실핏줄 끝까지 촘촘하여/땅속 더 깊이/즐겁게 짙어내는 수맥//’눈길을 뿌리에게 주어 그들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지는 꽃의 그림자를 다독이기도 한다. ‘꽃 그림자/꽃 따라 피어나/바람 함께 흔들리더니/꽃 지는 날/나폴나폴 따라 받아/한 몸으로 누웠다//’처럼 꽃 그림자의 처연한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낙화에서는 ‘정중한 바람이 받아 내린/저 찬란한 기록//’으로 감칠맛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시의 모습일 것이다.

자연과 대화하는 시인, 여기에 반어나 의미의 중첩 등은 당초 필요 없었으리라. 일상적 언술만으로도 그들과 통하고 마음을 전하는데 족하였으리라. 나무와 꽃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듯 하는 자연시편들을 읽으면서 하루해가 저무는 서산 노을을 감상하듯 편하게 생각되는 것은 나만의 감상이 아닐 것이다.

시인은 바닷가 마을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성장하였다. 조그마한 항구마을에서 바다가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바다

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다녔을 것이다. 바다와 함께 있던 인근의 화진포는 아름다운 호수의 사계를 통하여 꿈 많은 문학소녀의 꿈을 키우게 하였을 것이다.

여름흔적 지우려는 듯 파도가 높다
정갈한 명사십리
여름 밤 내 쏘아올린 폭죽들은
하나도 별이 되지 못했고
갈매기의 발자국은 사람의 것보다 읽기가 낫다

솔숲향내 서늘한 샛길 쪽에서
그림 속으로 걸어오는 사람 하나
화진포와 솔숲과 바다
캔버스 화폭에 갇혀 길을 잃었다

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있다
출구는 없어도 좋았다
- 「가을 화진포」 전문

여름 내 피서객들로 소란을 피웠던 화진포 해수욕장에 가을이 찾아왔다. 바다도 호수도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명사



십리 고운 모래밭에 갈매기가 발자국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쏘아올린 한때의 폭죽은 별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시인, 잠잠히 물새 발자국이 만들어낸 흔적을 읽고 있다.

화진포 솔숲 속에는 수천 년 전 유물인 고인돌들이 드문 드문 주저앉아 있다. 한때는 석기인 무리들이 큰 역사를 벌이던 곳이었다. 그 속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현존의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어쩌면 상상 속의 인물이기도 하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영혼만이 다가가는 은밀한 장소가 하나씩 있다. 그것이 까맣게 잊혀 있다가 한 줄의 시를 가슴에서 꺼낼 때 한 줄기 빛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내 마음의 안식처 속이라면 ‘출구’는 없어도 좋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이다.

시인이 화진포에서 그 사람을 만나던 날 ‘화진포는 온통 붉었다.’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을 간직할 수 있으면 잠재된 시인이요, 그 사람 꺼내어 호숫가를 거닐게 하면 시인이다. 사람이라는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그러하다. 그 사람 앞에서 ‘해당화 향내가 숨을 막았다.’처럼 이 절실한 만남에서 침묵도 추억이 되리라 자위하며 ‘저무는 모퉁이 산길을 그저 돌아 나온’시인의 화진포에 대한 추억은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하다. 시인에게 화진포는 ‘이발관에서 막 나온 남자’이기도 하고 고니가 찾아오면 제 종족을 만난



듯 마중 나가는 ‘찾골 윤씨네 거위’마냥 혼자사랑의 대상이 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화진포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살아가는 시인이기에 시를 대하는 마음이 늘 촉촉하게 젖어있음을 안다.

시인이 생각하는 화진포는 도심에서 지친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갈 수 있는 신성한 생명수며, 대양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의 일출은 그래서 ‘이 세상 단 하나의 해답’으로 빛날 것이다.

이 세상 단 하나의 해답인 양
해가 솟는다

별건 해 하나씩 끌어안고
도시 속으로 사라져갈 사람들을 위하여
길은 다시 화살표를 돌려세우고
화진포는 바다로 물길을 트고 있다
- 「화진포 일출」 부분

한때 거진 항구는 전국 제일의 명태 주산지였다. 지나다니는 개도 명태를 물고 다녔다는 전설의 시절, 집집마다 덕장을 매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명태를 말렸다. 그러나 1년 내내 경기가 좋을 수는 없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

는 명태철의 호경기가 끝나면 봄부터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있었다. 그런 거진에서 시장 뒷골목의 「쌀가게 할머니」는 이웃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며 살았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던 우리들의 할머니. 인심도 베풀고 기운도 펄펄하던 그 할머니도 나이 드시고 병나시니 가게 문을 닫았다.

거진 뿐이겠는가. 우리네 농어촌 소도시는 급격한 인구 유출로 썰렁해졌고 시장 뒷골목에는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았다. 이런 가게 하나 둘 사라질 때 시인은 소중한 옛 기억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아픈 마음을 갖는다. 시인이 애써 잊지 못하는 이웃 중에는 '고기잡이 배 기관장'도 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행운이 따라주지 못했던 기관장의 아내 는 시인의 친구, 그도 보듬고 싶은 이웃이다.

동네에 슈퍼마켓들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도 기운을 잃어
뒷골목 길은 사람들 발길이 뜸해져 버렸다
사람 그리운 할머니 북적이던 때를 못 잊으시고
세 들어 온 사람들과 정 붙여 살아보시려는데
소방도로 계획에 집이 헐릴 것이라는 말은
기억에서 자꾸만 지워버리시는지
아니면 글씨 바뀌 쓰시는 일에 재미를 붙이셨는지

늦둥이 손녀딸은 딱풀칠을 하고
나이 쉰이 넘은 아들은 유리창에 붙이고
할머니 손뼉 치며 아이처럼 즐거우시다
오늘은 분홍색 싸인펜으로 정성들여 쓰셨다
'가게 세 늦습니다'
- 「쌀가게 할머니」부분

시인의 꽃밭에는 작은 꽃들이 계절마다 이어가며 피고 있다. 정원에는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고, 그곳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도 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꽃과 나무에 관한 시가 많다. 시의 언어들을 일상어로 그것들이 잘 알아듣게 조곤조곤 일러주듯 쓰고 있다. '흙속에서 온몸 썩어저가도/네 눈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니/어느 날/눈 뜨고 잎 돌고 꽃 피어나면/축복으로 만나게 될/눈부신 세상의 생명, 생명들//이라고 씨앗이 가지고 있는 미래성과 그 생명체의 존중을 드러내놓고 있으며, 벌에게 쏘이고 나서도 벌을 미워하기 보다는 소통이 안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 가문 날 목말라 하는 꽃에게 물을 줄 때도 '젖을 시간일'주기 위해 마당에 내려설 때부

터 '물 주러간다'고 일러준다는 시인이다. 종달새와 '지지배배'마음을 나누고 모란에게도 흡사 어린 딸내미에게 찬찬히 일러주듯 속삭이기도 한다.

자연과 교감하는데 남다른 체험을 가진 그런 시인이기에 「나이테」에서 시인 특유의 시적 형상화로 이미지가 선명한 시 한편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구 한 바퀴 돌아갈 만큼 여운이 길게 남는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작은 동그라미 하나밖에 그리지 못하는 나무

누가 베어냈을까
선명한 틴테이블 레코드

긴 노래를 걸어 두고
바람은 숲으로 갔다
- 「나이테」 전문

김향숙 시인은 어쩌면 또 그만의 집을 짓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온갖 자연물들이 들어왔기에 더 좋아할 집을 짓기 위해 밤새워 그림을 그릴 것이다. 바람도 시원하게 통하게 하고 풀꽃들과 눈 맞춤하며 어린 아이 타이르듯 시를 쓸 것이다. 가끔은 그리운 사람 불러내어 화진포 호숫가를 걷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작은 이야기들을 과장하지 않고 담아낼 것이다.

'내 안에/짓다 만 오래된 집 한 채 있네//숲으로 이어진 길이 보이는/창가에 나무의자 놓아두고 싶었네//눈비 오고 바람 부는 날마저 아름다워/언젠가/숲 지나온 그 사람/창틀 속 그림처럼 내게로 오면//아,/감당 못할/감당도 못할//그래서/내 안에/그저 짓다 만/그리운 집 한 채 있네//

시인의 「짓다만 집」은 시인의 시작활동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말하고 있다.

시를 기이하고 교묘하게 써서 읽는 사람도 힘들고 시인 자신도 힘들어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시가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성과 소박함으로 끊임없는 온갖 사물과의 교감을 하면 노을이 번지듯 시에 젖어들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머지않은 날 무한한 세계에 대한 투시력 깊은 시를 또 다시 들려줄 것이라 기대한다. **속초예술**

자료로 본 속초예총 50년 역사

장 규 호 | 속초예총 명예회장, 국제교류단장



66년도면 필자가 속초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할 때이다.

당시 속초고등학교는 지금의 양우아파트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 제1회 설악제 때 이효상 국회의장이 설악산 행사장에 방문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설악동 舊단지까지 걸어서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속초예총이 지난 89년 4월 중앙으로부터 정식인준을 받았지만 이미 7~80년대에 문인 윤홍렬 선생님을 비롯한 문인협회, 미술 김영복 선생님을 비롯한 미술협회, 연극은 속초청년문화연구회에 소속된 청봉극회 회원들이 필자와 활동하고 있었다.

속초예총의 효시는 사진작가 고 최구현씨로부터 시작된 게 맞다. 지난 60년대 비인준 상태에서 당시 지역예술인의 집합체인 속초예총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설악제를 개최하는 등 그는 왕성한 예술 활동을 전개했다.

설악제의 역사에도 지난 66년 10월 1일 제1회 설악제가

속초예총 주최에 강원도예총 후원으로 기록돼있다.

강원도예총 연감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속초시가 지난 63년도에 시로 승격되었는데 그 해 5월 18일 속초시 광장에서 속초종합예술제를 했다.

64년 3월엔 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가 결성돼 제1회 해변촬영대회를 열었고 65년 8월 2일엔 속초여중 강당에서 속초음악협회 주최로 학생음악경연대회가 열렸다. 66년 2월 12일 김승순 피아노독주회, 66년 10월 1일 제1회 설악제, 12월에 신흥사 사진촬영대회, 69년 4월 23일 설악문학회 주최 속초문학의 밤, 7월 29일 가야다방에서 제3회 최구현 사진전이 있었다.

70년 4월 25일 설악문우회 종합문학회 갈피 제1집이 발간됐고 10월 4일 제5회 설악제 일환으로 속초종합예술제가 열렸으며, 73년 10월 20일 속초예총이 주최한 속초종합예술제(시낭송, 성악 및 기악, 무용 등 공연)가 설악제와



속초예총 현판식 모습



제1회 설악제 개막식 모습(66년 10월)



제1회 설악제

별도로 개최되었다.

74년 10월 4일 제9회 설악제 기념으로 속초예총이 주최한 속초종합예술제가 설악동 관광촌에서 열렸다.

이렇듯 속초예총이란 이름으로 민간단체가 예술제를 주관해오다 관선시대에 행정의 설악제 등 커다란 행사를 주관하다보니(설악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진행) 문화예술 행사가 뒷전으로 밀렸다.

제7회 때는 설악제가 폐지되면서 등산대회만 살아남았고 8회(73년도) 땀 예산지원을 받던 문화예술행사가 전면 중단돼, 속초예총이 별도의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설악제를 처음 만들었던 속초예총의 의도와는 달리 문예축제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지역문예축제에 대한 행정과 학계, 언론계의 비판적 인 시각 때문이었다고 본다. 지역문화 재생에 중점을 두지 않은 문화예술제는 학예회적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당시 시각 말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문인, 미술, 연극협회로 활동해오던 지

역예술인들이 속초예총을 만들기 위해 3개 협회가 예총 가입 서류를 만들어 고 윤홍렬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서울의 중앙예총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으신 후 89년 4월 7일 초대 지회장 윤홍렬, 사무국장 장규호로 중앙으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았다.

때맞춰 지난 89년 제24회 설악제위원회(위원장 이기섭)가 순수 민간조직으로 바뀌면서부터 이듬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속초문화회관 개관 기념 제25회 설악제 경축 제1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속초예총 4개 협회 연합으로 속초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명실상부 중앙인준을 받은 속초예총의 활동이 활발히 시작되었다.

지난 63년 7월 인준을 받은 강릉예총(초대 김병련 지부장)처럼 우리 속초예총도 이 시기에 정식인준을 받아 활동했다면 올해로 54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예술단체로 맥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속초예총

속초문화예술의 현 주소와 미래

김 영 대 |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사무국장

속초라는 작은 도시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할까.

시간을 따로내고 돈도 충분히 마련해야하고 예술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하고 등등.

예술을 즐기려는데 뭐가 이렇게 제약이 많지?

근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서 이제 한 번 즐겨볼까 생각하는데 진짜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

현재 속초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클래식을 비롯해 대중음악 공연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렇다!

다른 도시에서는 흔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이나 소공연장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 서울 가서 다 느

끼고 와야겠다.' 한번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간과 환경이 지속되면서 문화예술은 동떨어진 것이며 영동권에서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즐기는 것은 사치이자 배부른 소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영향은 예술은 그저 어려운 것, 고상한 것, 우리와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쉽게 치부되고 그렇게 대중과 예술은 서로 분리되어가고 있다.

그럼, 진짜로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건 절대 아니다.

기관과 여러 단체에서 매년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큰 약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이 행사 또는 축제라는 단발성 형태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대중들은 당시 즐겼던 콘텐츠의 대부분을 즐기고,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다. 참여했던 많은 예술가 역시 대중에게 선을 보이고 싶어도 보일 기회가 없게 된다. 분명 지역을 대표하



거리에서 벌어지는 저글링퍼포먼스



대구 김광석 거리



설악청소년댄스가요제



대구컬러풀축제중 펼쳐진 아트마켓

는 축제와 행사는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정착되면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 기간을 기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속초의 이미지 또한 대외적으로 상승되는 등 파생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축제와 행사의 큰 장점인데 문화예술 사업의 진행과정을 전제적으로 봤을 때 그 구조가 심각하게 편중돼있다.

작은 규모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큰 야외공연이 아니더라도 엑스포 광장에서 감상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갔더니 미술품이 꾸준히 전시돼있고, 시장에 갔더니 전통문화 공연을 볼 수 있더라. 물론 지금 나열한 예시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도 꾸준한 지원이 없었기에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이나 소극장이라도 상설 형태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도 상설공간이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 또한 멀어지기 마련이다.

큰 축제와 행사에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방향이 맞춰져

있기에 다른 영역으로 넓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사업은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또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연속성 있게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사업결과는 예측하기 힘들고 잘 드러나지 않기에 단순화해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화예술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목표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 요소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속초의 낙후된 문화예술은 곧 사라질 거라 믿으며 더 나아지길 갈망한다.

시민은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길 바라고 있고, 많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이전보다 더욱 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맘을 흘리고 있으며, 기관과 인력도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예술적으로 풍부한 속초가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모두 함께 발걸음을 차곡차곡 옮겼으면 좋겠다.

속초예술

글쓰기를 통한 마음치유

권정남 | 시인, 속초문인협회 회원



1. 마음의 문(門)을 여는 글쓰기

1) 문학의 기능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이며, 때론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바꿔주기도 하는 인간만이 갖는 소중한 정신문화이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돼 있던 불안이나 공포심, 분노, 슬픔, 미움, 적개심, 사랑, 기쁨, 걱정, 갈등, 초조함 등과 같은 온갖 감정들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문학은 역할을 해왔다. 문학의 장르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을 말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대부분 '교훈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으로 나눈다. 하지만 복잡다변화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한다면 '치유의 기능'을 제시해본다.

먼저 교훈적 즉, '교시적 기능'이란 문학작품을 통해 작가가 긍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쾌락적 기능'은 문학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쾌락 즉, 즐거움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문학이 독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해주지 못했다면 오랜 세월동안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다양한 문학작품들이 사랑받지 못

했을 것이다.

'치유의 기능'은 삶속에서 겪었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문학작품을 통해 재경험함으로써 위안과 평안을 얻게 하는 기능이다. 즉 글을 읽거나 쓰면서 가슴 안에 맺혀있던 아픔이나 상처가 감정이입 되면서 서서히 마음속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힘들었던 경험이나 상처가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마음치유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물질을 우선시하는 풍조 때문에 현대사회는 인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 이런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누구나 한두 가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스트레스 같은 통증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속 통증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권해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병들면 육체에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불안감에 휩싸인 마음은 초조와 긴장감, 우울증 같은 걸 동반하게 된다. 그렇듯 마음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있는 통증을 치유하고 힐링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기 글쓰기야말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소중한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펜과 종이만 있으면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다. 글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도록 해주며 새로운 나를 깨닫게 해주고, 자신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도 우리는 위로받기도 하고 마음속 깊숙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2) 치유의 역사

근래에 와서 독일과 미국 등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문학을 통한 치유가 재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현대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온갖 마음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여러 문학이론가들이 문학의 치유기능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문학이론가들이 일찍부터 설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치료(literary therapy)’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문학치료를 비롯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치료(art therapy)를 넘어서 철학치료, 역사치료, 인문치료까지 등장한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문학치료는 BC300년경 그리스 도서관 입구에 ‘영혼을 위한 약’이라는 현판이 새겨져 있을 만큼 문학치료에 대해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문학을 실제로 치료에 사용했던 기록은 고대 아라비아의 아파츠시대 카리프 아르미수르가 카이로의 한 병원에서 이슬람교 성전인 코란이나 기독교 성서를 환자에게 읽어주며 치료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고대 원시사회 원시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래와 시로 된 주술행위 일부분이었던 것이 오늘날 문학으로 정착되었다.

시치유(pome therapy)란 말은 시(詩)를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를 돕는다는 뜻으로 시인이자 약사였던 미국의 그리터(Griter)가 처음 사용했다. 리디(Leedy)가 시(詩)치료협회를 설립했다.

우리나라 문학치료에 대한 인식은 약 10년 전 한국여성인적자원개발부와 나사렛대학,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치료학과를 개설하였으며 사회복지 차원의 상담심리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정착됨으로써 활성화되었다. 20세기 들어 일부 시인들을 중심으로 문학치료 중 <시(詩) 치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차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에 김하리란 시낭송가가 최초 ‘시 치유사’자격증을 딴 후 문화에

술교육원에서 <시 치유(詩 治癒)> 과목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강의하고 있다.

시 치유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문학적 기원을 살펴보면 고대 사람들도 시(詩)나 가사(歌詞)를 써서 직접 읊으며 이별이나 마음의 통증을 달래며 위로를 받곤 했다. 고구려시대 유리왕이 쓴 최초 서정시 황조가나 고조선시대 백수광부 아내가 쓴 공무도하가, 신라 향가 중 처용가, 월명사가 쓴 제망매가가 있으며 고려시대 속요로 작자 미상인 가시리, 서경별곡, 청산별곡 등에서 마음속 고통을 글을 써서 해소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 사육신(死六臣)을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임금과의 이별이나 시대를 한탄하는 아픔을 시조나 가사로 지어서 표현하곤 했다. 그 후 민족의 수난인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으면서도 많은 작가들이 현실의 고통을 글로 남겼다. 글을 써서 남기는 일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참고서가 된다. 진솔한 마음과 감정을 담고 있는 그때의 심정을 돌아보게 되고 치유의 실마리가 됨을 알 수 있다. 시를 읽거나 쓰기를 통해 죽은 혼을 불러올 수 있고 고향과 어머니를 불러오기도 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속 치유가 시작된다.

3) 치유와 치료의 차이

우리는 가끔 치유와 치료를 혼돈할 때가 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가 있듯이 문학치료가 있다. 치료(治療, treatment)는 누군가(의사)에 의해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고 치유(治癒)는 힐링(healing)과 같은 의미로 스스로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이다. 즉, 치료란 병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치유란 병의 원인을 풀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치료란 외부의 누군가가 병을 고쳐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치유는 자신의 본질로 되돌아가 자기 스스로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이다. 또한 치유의 중요성은 정신적 건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쓰기는 신체적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정신건강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던 이를테면 불안, 공포심, 분노, 슬픔, 미움, 답답함, 적개심, 사랑, 기쁨, 걱정, 갈등, 초조함 같은 정서나 불안을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배설해내는 작업이다.

우울증이나 알코올, 인터넷 등 각종 심각한 중독에 빠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임상실험 사례에 의하면 문학적 치료 즉, 글쓰기가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분노와 증오심과 자괴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정리해보고 객관적 시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다. 그 후 마음 안에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신속하게 마음의 상처가 회복돼 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가끔 올레길이나 숲길 걷기, 마음 챙김, 명상치유 같은 말을 들어봤거나 그러한 힐링 체험에 참가한 적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거나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글을 쓰게 되면 애정 어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엔도르핀(endorphin)의 4백배가 넘는 다이돌핀(didorphin)이라는 감동호르몬이 몸 안에서 생성된다고 한다. 그 호르몬은 암을 정복한다는 설이 있다. 이렇듯 정신적 통증이 육체적 질환으로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해나가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을 사별한 후 매일 울고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글로 쓰라고 했다. 그랬더니 2년이 지나 70여 편의 시를 썼으며 각종 백일장에서 상을 휩쓸었고 시낭송을 배우기 시작했다. 3년 뒤 서울로 이사 가서 시낭송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집 출간 준비를 하며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내가 소속된 문학단체 회장인 일흔 넘으신 회원께서 10년 전에 수필로 등단하고 작년에 수필집 '동행'을 출간했다. 중년에 췌장암 수술을 하고 몇 년 후 갑상선 수술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율곡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신앙과 수필을 쓰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시고 힘차게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듯 글쓰기를 통한 마음치유는 다양한 연령층에게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나만의 '마음표현'을 마음껏 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고 변해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2. 용서와 화해, 내 안의 나(我)와 손잡기

1) 마음을 씻어 주는 카타르시스(catharsis)

카타르시스(catharsis)란 말은 그리스어로 정화(淨化)를 의미하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깨끗이 씻기는 현상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들이 비극을 주제로 한 연극을 관람한

후 주인공의 비극적인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극중의 고통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마음속에 고여 있던 불안과 슬픔 등 많은 고통들이 해소되고 정화되어가는 느낌을 말한다고 했다. 또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적 상처는 모두 어린 시절의 체험이나 정서장애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반드시 과거의 어린 시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불안요소를 말한다. 그런 뜻에서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예술 활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나가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후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한두 가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흥미가 가는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풀어내기도 하고 상처 난 영혼을 위로 받기도 한다.

우리는 가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안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물을 치듯 마음속에 고여 있는 오염된 물을 퍼내야 한다. 그러고 나면 마음 속 정화 즉,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진다. 삶을 통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상처, 불안, 초조, 긴장감, 슬픔 등 힘들었던 일들이 용서와 화해로 다가오며 혼탁했던 마음이 걸러지고 가슴 밑바닥부터 맑은 샘물이 고이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즉, 마음속 깊숙이 진실한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고 파도가 손잡게 된다.

내가 잘 아는 종갓집 종부로 시집 온 지인이 고된 시집살이와 함께 아들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한테 모진 구박을 당해서 마음 안이 상처투성이였다. 훗날 아들을 낳았지만 그 상처로 우울증까지 왔다고 했다. 수업시간에 '용서'라는 주제를 주었더니 종갓집 종부로 힘들게 살아온 아픔의 세월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글로 썼으며 강물에 씻어내듯 모든 걸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긴 수필로 썼다.

가끔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온 주변의 할머니들한테서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소설책 한권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그렇듯이 살아오면서 삶의 어두운 그늘이 마음속에 침범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실타래처럼 풀어내며 글로 써보는 것이 효과적인 치유방법이다.

2) 가슴속에 맺혀있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고통이나 상처를 글로 풀어서 쓰는 여

러 표현기법들을 제시해본다. 또한 읽은 책들 중에 마음속 상처나 통증을 글쓰기를 통해 배설 했거나 극복해 자신은 물론 독자들도 치유를 경험한 책을 소개해본다.

시로 써보기 : 가슴속에 고여 있는 불안이나 고통을 함축적인 언어로 연과 행을 나누어 기, 승, 전, 결의 4단계 구성으로 써본다. 그러한 경험을 시로 써서 시집으로 엮은 책들을 예로 들어본다. 김빈의 『시간의 바퀴 속에서』, 남진원의 『하늘에 기댄 아내』 이기와의 시 『그녀들 비탈에 서다.』, 김승희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 김용오의 『사부곡』 등이 있다.

일기로 써보기 : 가슴에 와 닿았던 하루일과 중 회로애락의 감정을 느낀 대로 일기장에 상세히 풀어서 써본다. 가장 치유의 효과가 큰 글쓰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기글로 이순신의 『난중일기』 안에 프랑크의 『안네일기』, 키도야야의 『1리터의 눈물』, 이점술의 『아버지의 일기』, 『내가 젖고 있다』 등이 있다.

편지로 써보기 : 사무치는 그리움이나 상처를 준 대상이나 아니면 자신 스스로한테 화가 났을 때 편지를 써본다. 잘 알려진 문학 작품으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영도의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있다.

수필로 써보기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등 6하 원칙을 기준으로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1인칭 독백으로 고해성사 하듯 마음껏 풀어서 써본다. 독자를 위한 잠언이나 개발서 같은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수필집으로 이은자의 『동행』, 최현숙의 『모두가 꽃이다』, 키도시오카 『생명의 허들』, 주명순의 『빛의 실마리』, 법정스님의 『무소유』, 헤밍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기행글로 써보기 :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나 인상적인 만남을 통해 힐링으로 와 닿았던 순간들을 시간과 장소의 순서대로 써본다. 수첩에 메모는 필수이다. 훗날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내가 여행지에서 쓴 ‘통곡의 방’, ‘칠성담에서’를 써봤다. 공지영의 『수도원기행』, 법정스님의 『인도여행』, 류시화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박완서의 『잃어버린 여행가방』, 한비야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그 외 수많은 여행도서가 있다.

소설로 써보기 : 주인공인 캐릭터를 선정한 후 발단, 전개, 갈등, 클라이막스, 종료 5단계 구성 원칙에 의해 써본다. 사실적인 논픽션(nonfiction)을 글의 소재로 쓴

다. 독자들에게 흥미를 돋우게 하는 상상력을 가미한 픽션(fiction)으로도 써본다. 그 중 와리스디리의 『사막의 꽃』,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 이화국의 『꿈꾸는 수레』, 오토 다케 히로다다의 『오체 불만족』, 박경리의 『토지』,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나』 등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수기나 자서전 형식으로 써본다. 그 외 6.25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겪은 1920~30년대 많은 작가들이 민족의 수난을 글로 쏟아냈으며 시대를 한탄하다가 요절한 작가도 많이 있다. 주변의 일로 힘들 때 글로 써본다 :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무의식 속에 잠재 되어있던 이웃들의 아픔이나 홍수나 태풍 같은 일본 쓰나미나 쓰촨성 지진 같은 천재지변, 세월호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어린이 학대뉴스, 탈북자들의 이야기 등 그 외 사회적인 문제들이 마스크에서 쏟아져 나온다. 또한 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소리들이 내 안의 상처가 되었을 때 문득 글로 써서 배설해내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시낭송 해보기 : 요즘 각 지역마다 시낭송 동아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시와 유사한 은은한 배경음악을 넣어 시낭송을 하면 낭송자와 청자가 모두 감정입이 되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토닥여준다.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심리치료를 위해 많이 활용한다. 더욱 중요한건 자신이 쓴 시나 수필을 직접 육성으로 낭송했을 때 마음속 고요한 파동이 일면서 마음이 정화되어가는 걸 느끼게 된다.

3) 화살처럼 쏘아낸 내 안의 통증들

가슴속에 무의식적으로 종횡무진 가지를 처가며 자라고 있는 상처들을 글쓰기를 통해 쏟아내다가 보면 원한도 배신도 내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신과 따뜻이 손을 잡게 된다. 그렇게 쓴 글들을 퇴고과정을 거쳐 옥석(玉石)을 구별해 다듬다보면 한편의 소중한 문학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작가로서 발돋움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해답을 얻게 된다.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자마(Jama)』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천식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때의 경험을 매주 3일 연속으로 20분씩 글로 쓰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날그날의 계획만 쓰도록 했다. 놀랍게도 4개월 후 자신의 스트레스를 매주 글로 썼던 천식환자들의 폐기능이 한결 좋아졌다

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날그날의 계획만 쓰도록 했던 그룹에서는 꽤 기능의 호전이 없이 그대로였다. 또한 「자마」에는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주사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커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에게 일기를 통한 치료과정에서 고통과 인간적 갈등,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자유롭게 일기에 쓰도록 했다고 한다. 3개월이 지난 후 종종 우울증을 보였던 사람들은 경증으로, 경증의 우울증을 보였던 사람들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정신건강이 확연하게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동안 일기를 쓰면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해소되면서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글쓰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 정신질환의 호전에도 좋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단순한 글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글쓰기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글쓰기는 내 안의 통증들을 화살처럼 쏘아내는 작업이다. 그렇게 쏘아낸 글들이 독자들 가슴에 동질의 아픔으로 전이가 되고 누적되었던 아픔들이 용서와 화해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글쓰기를 통해 얻어진 카다르시스는 심리적으로 대리만족, 대리배설, 자기와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를 하며 진취적인 삶을 충전해준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성격이 밝고 자제력이 크며 판단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기억력, 상상력, 논리적 사고 등도 모두 좋아진다고 한다. 탁월한 상상력과 뛰어난 언어감각에 도움을 주는 글쓰기가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우울증의 해소와 기분 향상, 성격적 결함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힘든 시련이나 고통 등을 극복해내는 의지와 실천력이 강해진다고 한다. 화살처럼 쏘아낸 글들이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솔직하게 자기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마음속의 정화 즉, 카다르시스가 이루어졌느냐가 관건이다.

3.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詩 감상

한편의 시나 수필, 소설이 지친 삶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삶을 일어서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한 글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던

외로움과 고독, 슬픔과 분노가 용해되어 마음속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다. 많은 시인들은 자신들의 통증을 시로 발표하면서 스스로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세상과 소통을 시도했다. 동질의 통증을 체험한 독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파도처럼 일렁이는 감동이 마음속 치유로 일렁이게 된다. 다음 고통의 체험을 詩로 표현한 여러 유형의 작품을 감상해보기로 하자.

그리움을 주제로 쓴 詩

누가 곤륜산 옥을 깎아/직녀의 얼레빗 만들었나/견우가고 아니오니

시름에 겨워 푸른 하늘로/내던졌네(황진이詩 <반달>)

내 그대가 그리워 허공에 못질을 한다/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내 그대가 그리워 물위에 못질을 한다/못이 들어가지 않는다(정호승詩 <못>)

외롭고 허전함을 주제로 쓴 詩

사는 일은/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국수가 먹고 싶다//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고향 장거리 길로/소 팔고 돌아오듯/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어느 곳에선가/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마음의 문들은 닫히고/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국수가 먹고 싶다(이상국 詩 <국수가 먹고 싶다>)

울지 마라/외로우니까 사람이다/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토요일도/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정호승詩 <수선화에게>)

상처를 주제로 쓴 詩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그대여, 임진강가에 선다 아주 잠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강물을 바라본다//미워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얼굴/내 마음엔 어느 새 강물이 흘러들어와 그 사람의 얼굴을 말갭게 씻어준다//그래, 내가 미워했던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얼굴에 끼어있던/삶의 고단한 먼지, 때, 얼룩이 아니었을까

그래,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을까/미처 내가 보지 못했

던/나의 상처가 아니었을까//임진강가에 서면/막 세수를 한 아이의 얼굴 같은 강물만/강물만 반짝이면서 내 마음의 빈틈으로/스며들어온다 내가 미워한 것은/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누군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면/그대여 임진강가에 서서 새벽 강물로 세수를 하라/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속에 그대가 미처 보지 못했던/치욕스러운 삶의 눈물을 보라 그것을 받아들이는/강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라.(원재훈 시<임진강가에 서서>)희망과 용기를 주제로 쓴 시

저것은 벽/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그때, 답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르다//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답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한 뼉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답쟁이 앞 하나는 답쟁이 앞 수천 개를 이끌고/결국 그 벽을 넘는다.(도종환 시<답쟁이>)

이별을 주제로 쓴 시

이별이 너무 길다/슬픔이 너무 길다/선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버린/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뚝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선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픈 실을/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베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그대 짠 베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이별이 너무 길다/슬픔이 너무 길다/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그대 손짓하는 여인아/유방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마지막 머리털까지도 빼앗길지라도//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오작교가 없어도 노뚝돌이 없어도/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갈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가슴과 가슴을 노뚝돌 놓아/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문병란 시<직녀에게>)

꽃이/피는 건 힘들어도/지는 건 잠깐이더군/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넋 한 번 생각할 틈 없이/아주 잠깐이더군//그대가 처음/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잇는 것 또한 그렇게/순간이면 좋겠네/멀리서 웃는 그대여/산 넘어 가는 그대여//꽃이/지는 건 쉬워도/잇는 건 한참이더군/영영 한참이더군(최영미 시<선운사에서>)

부모를 주제로 쓴 시

인동꽃이 지천입니다/작년까지 멀쩡히 인동꽃 따러 다니시던 어머니/당신이 이 많은 인동꽃을 보았으면/온 얼굴 가득 환한 웃음 담고/이 향기 나고 탐스런 인동꽃 덩굴 속에서/해지는 줄 모르셨으리라//혼자 사시던 집에는/이맘때면 방안 가득 따 나르시던 인동꽃 냄새가/방안을 채우고 당신의 몸에도 배어/당신이 인동꽃인지 꽃이 당신인지//인동꽃이 지천으로 피었습니다./당신이 훨훨 다닐 수 있다면/어머니 찾으실 곳은 이쯤이겠지요/그리고 보니 지금 당신이/이 속에 계십니다/천지가 어머니 냄새입니다.(김춘만 시<인동 꽃이 지천이네>)

아이 하나 낳고 셋방을 살던 그 때/아침 해는 둥그렇게 떠오르는데 출근하려고 막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데//뒤에서 야야! 야야!/아버지 목소리 들린다// “저어---너---, 한 삼십만원 읊겠니?” //그 말 하려고 엿저녁에 딸네 집에 오신 아버지/밤새 만석 같은 이말/그 한마디 뱉지 못해 하얗게 몸을 뒤척이시다//해 뜨는 골목길에서 붉은 얼굴 감추시고/천형처럼 무거운 그 말 뱉으셨을 텐데//철부지 초년 생, 그 딸/ “아부지, 내가 뭘 돈이 있어요?!” //썉썉 무 토막 자르듯 그 한마디 뱉고 돌아섰던/녹슨 철대문 앞 골목길//가난한 골목길의 그 길이만큼 내가 뻘은/그 말, 아버지 심장에 천근 쇠뿔이 되었을 그 말/오래오래 가슴속 붉은 강물로 살아/아버지 무덤, 그 봉분까지 치닿고 있다.(이영춘 시 <해, 저 붉은 얼굴>)

죽음을 주제로 쓴 시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슬프고 슬픈 광릉의 땅이여/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구나/백양나무 숲 쓸쓸한 바람.../도개비 불빛은 숲속에서 번쩍이는데/지전(紙錢)을 뿌려서 너의 혼을 부르고/너희들 무덤에 술 부어 제 지낸다/아! 너희 남매 가없는 외로운 혼은/생전처럼 밤마다 정답게 놓고 있으니/이제 또다시 아기를 낳는다 해도/어찌 능히 무사히 기를 수 있으랴/하염없이 황대의 노래 부르며/통곡과 피눈물을 울며 삼키리(허난설헌 시 곡자<哭子>)

남은 꽃잎이/남은 하루가 운다/자목련 나무 밑에 흩어진/당신 벗어놓은,

고무신 한 짝/큰 맨발이 더 사랑스러운

짧은 봄날 같았던//아내(정정남 시/자목련 지는 날)

글쓰기는 나를 읽는 작업이다.

한 편의 시나 수필, 소설이 지친 삶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삶을 일어서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한 글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내재돼있던 외로움과 고독, 슬픔과 분노가 용해돼 마음속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다.

글쓰기는 나를 읽는 작업이다. 즉, 자신을 스캔 복사하는 작업이다. 많은 시인들이 자신들의 통증을 시로 쓰고 또 발표하면서 스스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세상과 소통을 시도했다. 동질의 통증을 체험한 독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파도처럼 일렁이는 격랑이 마음속 치유로 일어난다.

4.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글쓰기를 시작하라.

우리는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삶을 교감하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고 힘들 때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혼탁했던 마음이 정화됨과 동시에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과 허약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가리킨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경이면 '우울증'이 미래질병1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결핍에 대한 정신적 욕구가 커지고 인간관계에서도 허기 같은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자칫하다가는 마음의 질병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 대학 페이베이커 교수는 20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그 어떤 털어놓거나 표현보다 언어를 통한 글쓰기가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면역체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 사랑하는 사람의 예견했던 죽음 같은 피할 수 없는 이별이나 고통 같은 힘든 삶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순간 펜을 들고 백지 앞에 아픔을 쏟아놓으면 변화돼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글쓰기는 진실한 자신을 읽는 작업이다. 고통의 경험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들을 억압하고 깊은 무의식속에 간직된 스트레스가 더 문제된다. 말 못할 상처나 비밀로 괴로울 때 고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 시를 쓰거나 일기, 수필 등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나면 정신적으로 평안과 위로, 소통이 찾아온다. 또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투병기나 투병과정을 글로 쓰면 병세의 진전이 자세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한 극복과 의지도

향상된다.

글쓰기를 하다보면 상상력과 어휘력, 추리력, 논리적 사고 등이 증진되며 작품의 완성 후에도 성취감과 만족감이 생기고 슬픔이 행복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즉, 마음속 깊이 상처 난 자리에 새살이 돋아남을 느낄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삶이 고되거나 지칠 때,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날 때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독소들을 밖으로 쏘아내는 글쓰기를 권해 본다.

글쓰기의 목적은 긍정적인 삶의 힘을 얻는데 있다. 자기 스스로 그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쓴 시나 수필, 소설 같은 간접 경험을 글을 통해 체험하므로 위로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중년 및 노년의 고비에서 글쓰기를 하면 인생을 회고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인생 후반기를 멋지게 누릴 수가 있다.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세상일을 멈추고 글을 쓴다는 것은 삶의 작은 습표이자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속초예술

권정남 약력

등단 : 87년 『시와 의식』

시집 : 『속초바람』 『서랍속의 사진 한 장』 『물푸레나무 사랑 법』

『연초록, 물음표』 출간.

수상 : 강원문학상, 관동 문학상, 강원여성 문학상

활동 :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관동문화회, 강원도문인협회,

강원여류 산까지, 설악문우회 『갈매』 회원으로 활동

속초연극의 미래를 향하여

- 「카운터포인트」 제작을 통해 본 2016년 -



이 반 | 前 속초예총회장

편집자로부터 2016년의 연극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6년 하면 속초연극계는 청봉, 파·람·불, 소울시어터 등 세 극단이 모여 공연한 「카운터포인트-소현세자, 흔적과 표적」이라는 작품에 대해 글을 쓸 수밖에 없고 그 희곡을 쓴 작가로서 글을 쓰면 자연히 작가의 주관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데 글의 성격은 분명히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기술해나가야 하는데 하며 난감해했다.

일본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나 「깊은 강」을 읽고 감명 받은 적이 있다.

기독교의 전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 못지않은 박해와 갈등을 빚은 역사가 있는데 우리에게엔 엔도의 소설과 같은 작품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교양과목 중에 「기독교 문화사」라는 것이 있었다. 사학자 김양선교수가 강의했는데 그 분은 한국기독교 출발점 중의 하나가 소현세자를 통해서라고 강의했다. 그 시간에 경교라든가 윤양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마침 일본 오사카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그 대학이 외부 초빙교수에게 제공해주는 조건이 숙소와 연구비 제공

이었다. 많은 선배교수들은 연구비로 일본 전역을 찾아다니며 여유롭게 여행한다고들 했다. 7년간 학교에서 시달리다 1년간의 「연구 년」을 맞아 얻은 휴식기간이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숙소에 연구비까지 주는데 쉬면서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일본 대학 측에 나는 연구해야 되니까 연구실을 달라고 했다. 전망이 좋은 쾌적한 연구실이 배정되었다. 나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며 작품을 써나갔다. 「카운터포인트」였다. 마침 국내와 일본에서는 이라크 파병문제와 북한 핵문제로 야단이었다. 무기사찰과 파병이 주요 관건이었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의 초점을 소현세자의 전 인생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선교와 전통가치의 충돌에 둘 것인가 고민도 했다. 그런데 집필 당시의 역사와 상황이 밀려들면서 자연히 이야기가 길어졌다.

일본에 가기 1년 전 문예진흥원에서는 전국에서 공연되는 모든 공연을 보고 그중에서 우수한 공연 몇 편을 선택해 지원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나를 심사위원 중의 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 전국에서 공연된 30여편의 연극을 관극하고 얻은



결론은 한 사람의 연극인으로 위기감 같은 것을 느꼈다. 미디어의 발달로 주변의 상연물들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연극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악한 공연장, 보잘것없는 무대와 초라한 의상, 연기 지망생들의 어설픈 몸짓, 불명확한 대사, 나이드 연극인으로 진흙탕 속에서 헤엄치는 기분이 들었다.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러기 위해 희곡부터 달라져야겠다. 그런 내 생각이 「카운터포인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속초에서 극단들이 하는 연극은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입장료 10여만원 이상 하는 서울 오페라공연을 단체로 관극하러 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오페라는 르네상스 이후 그리스 비극을 재연해보겠다고 해서 탄생한 통속극인데 그것이 속초시민들에게 그렇게 인기라니... 서울 오페라 갈라쇼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연극의 자산 가운데 코러스가 있고 한때는 배우 수보다 많을 때도 있었다. 「카운터포인트」에 코러스를 등장시켜 난쟁이처럼 작아지는 연극을 더 커보이게 하자. 극의 흐름을 코러스가 끌고 가게 하자.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쓰기 시작하고 마쳤다. 영국 연극이 영화와 TV 출현으로 밀리고 있을 때 시인 T.S.엘리어트와 연출가 브라운(E. Martin Browne)이 「대성당의 살인」이라는 작품으로 캔터베리 축제를 장식해 활력소 역할을 한 역사를 상기했다. 나는 작품을 문학지에 게재하고 문학상도 받았다. 극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 마침 교통사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속초연극인 장규호 씨에게 주며 한번 읽어보라고 했다. 그는 완쾌 단계에 있었다. 이후 아무 소식이 없어 다른 극단에 주었다. 그 극단에서는 서울과 일본 동경에서 공연했다.

2015년 연말에 속초연극연합팀(지부장 남상진)에서 「카운터포인트」를 2016년 작품으로 공연하기로 했다. 연출은 속초와 익숙한 강원도 연출가 변유정씨로 정했다. 연출은 일본인이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스즈키의 제자였다. 스즈키의 배우 훈련은 매우 특이하고 합리적이라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나는 「카운터포인트」는 둘째 치고 속초 연극인들에게 제대로 된 배우훈련이라도 시켜야겠다는 욕심으로 그녀를 강력히 추천했다. 작가와 연출가, 파·람·불의 석경환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연출가는 작가에게 작품을 맡긴 이상, 작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작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가능한 자신의 의견을 자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연습은 몸 운동과 발성연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직장과 일터로부터 모여온 단원들은 30여명이나 되었다. 연습시간 전에 도착하는 회원들도 있고 한창 연습 중에 도착하는 단원들도 있었다. 속초 시내에는 3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을 모아 놓고 연습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없었다. 자연히 연습장이 될 만한 공간을 찾아 옮겨 다녀야 했다. 최적의 연습공간은 상도문에 있는 도문농요전수관 강당이였다. 그곳의 배려로 넓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연습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교통이었다. 단원들의 열성으로 교통 문제 같은 것은 극복할 수 있었다. 변유정 연출의 연습방법은 극본을 연습하기 전 1시간이나 1시간30분 동안 몸 풀기나 발성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지친 몸으로 긴 시간동안 육체운동을 하고 대본 연습에 들어가니 자연히 지치는 단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출은 사정을 보아주지 않고 연습을 강행했다. 체력을 키우는 운동을 계속하니 단원들의 체력이 자연히 향상되는 것 같았다. 나이 든 연기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작가와 연출의 거리

첫째, 스토리 전개에 대해

나는 「카운터포인트」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극을 진행시켜 나갔다. 발단이 있고 상승이 있고 갈등이 시작되어 파국을 향해 나가는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했는데 연출은 작품의 기초정보를 제공해주는 발단이나 상승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갈등이 심한 극적인 장면부터 시작했다. 이 과정을 영화 편집으로 설명하면 원작은 고전적 방법으로 극을 진행시켰는데 연출은 몽타주적 편집방법으로 극을 진행시켜 나갔다. 설명적인 요소를 삭제하고 극적인 행동으로 작품을 짜나갔다. 그렇다고 원작의 의미를 추구해나가는데 있어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을 단축시키고 관객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극이 진행되는 100분 동안 관객들이 작품에 집중했다.

둘째, 코러스의 시에 대해

「카운터포인트」는 에피소드에 못지않게 코러스가 중심인 작품이다. 그리스극의 코러스는 대개 일곱 개의 기능을 한다. 「카운터포인트」도 대여섯 개의 기능을 하게 되었는데 연출은 이 기능을 합창 하나로 일관되게 처리해나갔다. 연기자들의 능력과 연습시간의 한계로 코러스의 시가 섬세하게 전해지지 못해 시의 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점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

셋째, 결말과 카타르시스의 문제

비극 또는 진지한 연극의 결말은 끝에 가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비극의 목적을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통한 그 같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해야 된다고 했다. 인조의 명령에 의해 소용 조씨와 의사의 간교에 의해 소현세자는 독배를 마신다. 그는 장열하게 순교한다. 코러스의 절규와 간절한 희망의 기원이 울려 퍼지면 막이 내린다. 극이 끝난다. 관객들은 실망한다. 극이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했다. 작가도 못내 아쉽다. 소현세자의 죽음이 너무 평범하다. 극적인 음성도, 몸짓도 없다. 세자빈 강씨의 절규도 평범하다.

현대 연극작가로 서사극을 창시한 브레히트는 비(非)아리



스토텔레스적 연극을 주장했다. 미국 연극작가 로버트 윌슨도 그의 이론 중의 일부에 찬동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카타르시스가 없다. 변유정의 연출은 감동을 만들어내지 않고 관찰을 유도한다. 예술이 감정을 자극해 관객을 흥분시키던 시대는 지나갔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성적인 몸짓으로 관객에게 환상을 던져주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한류 운운하며 예술이나 문화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카운터포인트」에서 카타르시스를 없애버린 연출의 의도에 공감한다.

속초연극인들은 2016년을 매우 뜻있게 보냈다.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수상의 영광보다 변유정이란 연출가를 만나 미래를 예비한 연극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의 마지막 공연에서 연극인 전세권을 비롯한 옛 신희 단원들과 작가이며 평론가인 박정기 등이 기립박수를 하며 무대로 뛰어올라와 속초연극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속초예술



사진가의 미학적인 주관이 작품을 담아낸다

산정 임 흥 빈 | 산악사진가



사진은 19세기에 세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회화의 그늘에 자리매김했다. 1850년대에 기록이 아닌 예술을 위한 사진이 시작되었을 때도 미학, 기본적인 개념, 용어 등은 대부분 회화에서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1세기가 넘게 예술로서 보다는 기록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또 19세기에 등장한 초기 예술 사진가들은 대부분 화가출신이었고 회화의 연장선상에서 사진을 이해했고 그림그리기로 이루지 못한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사진으로 성취하고자 했다. 사진은 외형적으로는 회화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평면예술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후발주자인 사진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회화도 사진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상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표현을 하게 되었고 빛의 흐름에 따른 색채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동적인 표현을 시도하게 되었

고 사진과 같은 극사실적인 재현도 시도했다.

회화가 추구하는 미학은 19세기 예술사진뿐만 아니라 20세기의 모더니즘사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작품의 근원으로 작동했다. 특히 작품의 표면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미학적 태도는 회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사진적인 재현 방식과 미학적인 특성이 중요하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사진적인 재현과 미학은 미술적인 미학 및 표현방식과 융합되어 미학적인 개념이 변모했다. 그 후 21세기 디지털테크놀로지와 만난 사진은 또 다르게 미학이 변모를 거듭하고 있고 존재방식도 예측하게 어렵게 되었다. 전통적인 음영사진은 이제 쉽게 만날 수 없고 희귀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사진적인 느낌, 사진적인 재현, 사진미학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진가나 예술가의



내설악의 빛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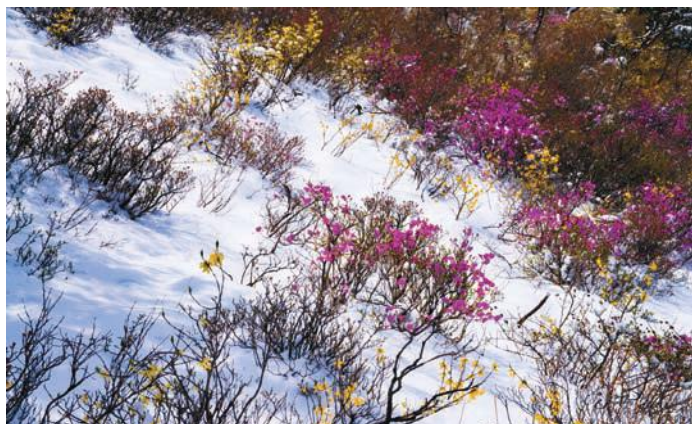
세계관 및 미적인 주관의 작품을 생산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사진은 카메라(camera)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재현하는 도구예술이다.

사진가들에게 해 뜨기 직전과 해질 무렵의 수십 분은 매직 아우어(Magic hour) 또는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라고 한다. 이때는 광원이 되는 태양이 직접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상태여서, 색상이 부드럽고 따뜻해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매직 아우어(Magic hour)는 사진가들에게만 있는 시간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마다 각각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매직 아우어, 골든타임 대를 찾아 즐기는 것은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겠다.

이른 새벽 설악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 10여 동안 설악을 오르내리면서 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설악의 신비스러운 비경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산에 오를 때마다 산악의 비경을 마음껏 담는 것은 아니다. 고된 산행을 해서 어렵게

산 정상에 올라가도 기상 여건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려야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설악산은 대한민국의 아주 귀한 보배이다. 우리는 산에 대한 이해와 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다.

설악을 오르고 오른 느낌을 짧은 글귀로 표현해 보았다.



설악 춘설화



설악의 춘설

雪嶽 가슴에 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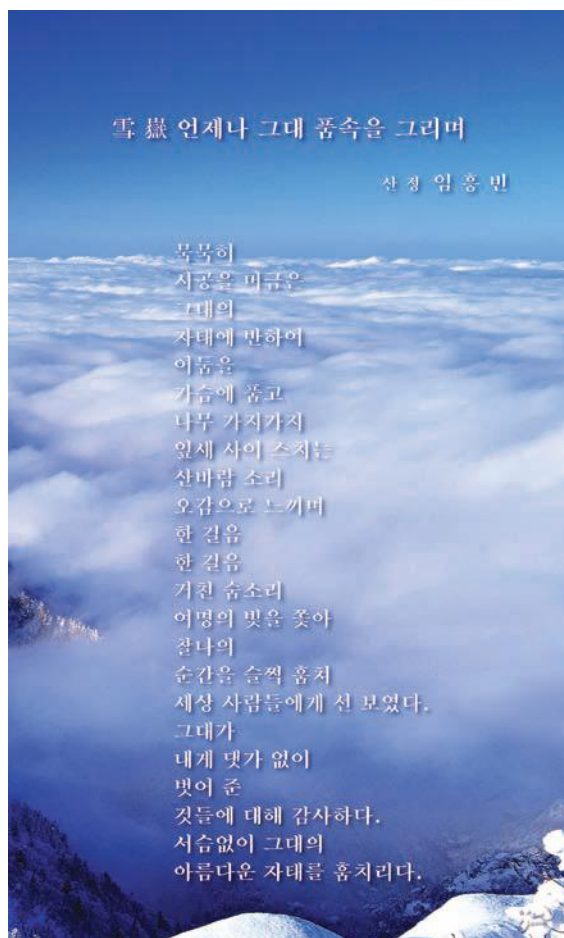
山情 임흥빈

끊임없이
푸른 동해
바다의 물결이
동풍에 일어
설악의 골짜기
사이 깊이
스물스물 운해가
피오올라

설악의 아름다운
자태를 질투하듯
지운다
노송은 흰 운해
솜이불을 덮고
잠시 잠이 든다.
밀려온 운해가
하늘 높이
닿기 전에
빛을 쫓아
어서 걸음을
재촉한다.



설악에 들다



임흥빈 작가 프로필

(사)한국산악사진가협회 감사(前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도협의회 운영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부지부장

대한민국공무원미술협의회 회원

속초시 공무원 재직

국립공원/산 사진 공모전 외 우수상, 은상, 동상 등 다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산악사진 전시회/선수촌 문화행사장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산악사진 전시전

〈설악 언제나 그대 품속을 그리며〉개인전(2015.5.1~2015.6.28)/국립산악박물관

"설악山 Sketch" 개인전(2015.9.22.~2016.8.31)/속초시립도서관

백두대간 와유(臥遊) 특별전(2016.4.2~2016.5.29)/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국산악사진전시회(2016.9.28~2016.10.4)/세종문화회관 제2전시실

돈오점수(豚悟漸修 돼지띠 5인 전시 명칭) 5인5색전(2016.9.1~2016.11.12)/속초시립박물관《저서》

– 설악 언제나 그대 품속을 그리며(북메이드, 2015)

– 돈오점수(豚悟漸修) 5인5색전 사진집(한울출판사, 2016)

《작품 소장처》

– 대한민국 정부 국무위원회의실, 국립산악박물관, 강원도청, 강원도인재개발원,
속초시청, 속초시의회, 춘천지방방법원속초지원, 속초경찰서, 속초해양경비안전서,
강원도민일보영북본부, 속초시립도서관, 농협중앙회속초지부, 속초시상수도사업소,
기업은행속초지점, 속초시 교통주민센터, 서울 강남베드로병원.

* 작가 블로그 : [HTTP://BLOG.NAVER.COM/IMHB86](http://BLOG.NAVER.COM/IMHB86)



공룡능선 추경 운해

나의 작품 소재는 자연

- 어울림 -



표지작가 **고주리**

작가노트

사이잘이란 섬유재료는 매력 있는 소재이다. 열기설기 투박하고 거친 사이잘 질감의 매력에 빠져든다. 사이잘 실을 일일이 풀면 마치 수세미 속 같기도 하고 시골집 명석 재료인 지푸라기가 생각난다. 질박한 느낌, 거칠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좋다. 얹히고설킨 실들의 모양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얹히고설킨 우리네 인생살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감흥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감. 인간의 삶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이잘 실을 울울이 풀어 여러 가지 종류의 염색물감으로 실에 염색을 하고, 다양한 색상을 내기위해 염색물감을 서로 섞어 색을 내기도 한다. 무수히 많은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또한 섬유공예의 다양

한 재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사이잘, 펠트, 양모 실 등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잘 이루며, 주제에 맞는 소재를 창조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의 작품소재는 자연에서 찾는다. 자연의 아름다운 보고인 숲을 소재로 삼으며 숲속에 존재하는 나뭇잎사귀, 꽃, 나비, 영롱한 이슬 등이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푸릇푸릇한 나뭇잎의 생명력, 나뭇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은 우리에게 신선함과 정화된 마음을 갖게 한다. 꽃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고 행복감과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존재이다. 많은 생명력을 품고 있는 숲속에 존재하는 소박한 꽃 그리고 나비, 나뭇잎사귀, 이슬 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한다.

경력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모전(청주예술의전당)
서울미술대상전(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한국여성미술제(이형아트센터)
한국여성미술100년전
남북코리아 여성 오늘전(국회의원 회관)
서울여류화가협회전(인사아트센터)
글로벌GAF북경전
강원아트페어참가(춘천, 원주, 강릉)
뉴라이트코리아전(갤러리상)
한,독 아트디자인, 공예소화전(독일).
한국미술의 흐름전(미국, LA)
KASF전(서울무역컨벤션센터),
속초시문화상, 강원미술상 수상
속초미협전, 강원도미협전, 한국미협전
개인전11회(부스전 포함), 국내외전시다수.
강원도미전 초대작가, 서울여류화가회 회원,
속초여자중학교 미술교사 재직
현재 한국미협 속초지부장



박혜정 작 파도 2012년 유화 12P



소향 박혜정

-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1990)
- 속초미술협회전 다수
- 강원도미술협회전(4회)
- 한국미술협회전(2010)
- 사랑나눔자선미술전 다수
- 개인전4회
- acaf 2015(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 강원아트페어전
- 속초설악문화센터
- 강원두레노리소리
- 색채의 향연전
- 통영바다미술전(동해안작가 초대전)
- 중국 훈춘시 교류전
- 제7회 동아국제미술전 입선
- 제8회 동아예술대전 입선

현 한국미술협회회원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 미술 강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아야진해변길 69-11
이메일 egimi-hj@daum.net
연락처 010-4405-6073

바쁘고 힘겨운 여름이 지나가면 내속엔 꿈틀꿈틀 무엇인가 솟아나기 시작한다. “자 이제 붓을 들어볼까?” 여름내 바빠서 미술작업에 굶주리던 나는 틈틈이 모집한 나만의 자료와 소재로 물감을 풀어 색깔을 입히고, 고민하고 연구한다. 마치 나의 번덕스런 마음속처럼 화폭 속 나의 그림도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맑았다가 평온했다가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다가 흡족한 한 작품이 완성되어 나오는 그 순간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온 우주의 행복처럼 커다랗게 느껴지는 기쁨을 맞본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나의 작품이지만 보는 관객이 편안하게 힐링이 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랄게 없겠다.

그림으로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작가, 가까이서 관객과 소통하는 노력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2016. 9. 29 소향 박혜정



조 정 남

- 세계평화대전특선 강남미술대전특선
- 한성미술대전특선 한국여성미술대전특선
- 강원미술대전 특선외 다수입상
- 단체전 60여회 현 한국미술협회회원

속초시 미시령로3409 103동
1503호(럭키설악타운2차)
mobile. 010 8734 0878

조정남 作 영원한 사랑

15M(45.5×65.1cm), oil on canvas, 2016

해맑은 날이다
빛이 한바탕 노닐다 갈 모양이다
조금전의 우울모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않은 사물의 물성이
캔버스위에서 춤을 추자고 한다
나의 직관들은 붓이아닌 나이프로 면면히 최대한
색채의 순도와 명도를 잃어버리지 말자고
주문을건다

생화이면서 조화같은 스타치스(꽃말:영원한 사랑)를
원형 바구니에 가즈런히 담고 오랜 그리움이 숨어있는
소라와 녹색의 찻잔을 레몬색과 오렌지색의 천위에
안정된 구도로 놓아본다
날을 준비를 끝낸 새의 눈으로 주시한다
의식은 자유롭게 손은 대담하게
나름 aura가 있는 그림을 탐하면서 ...



최금란 작 어우러짐 8호F, 2015

우리는 수많은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나 믿음, 도덕과도 같은 높은 가치들을 추구했지만
 어느새 돈과 같은 수단적 가치가 목적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국, 돌아보면 소중한 것은 도구가 아닌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한 따뜻한 일들이 행복한 재료가 되어 세상을 만드는데 더해진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우러진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창조하는 것이겠지요.....!



최 금 란

- 교육학 박사(교육심리학, 교육공학)
- 2011. 도토리현 - 강원도미술협회 교류전 • 2010. 강원아트페어전 초대(춘천문화예술회관)
- 2006~2007. 동북아시아 미술대전(한국, 일본, 중국)
- 2005. 중국형주시 서화작가전
- 2003~. 아세아수채화작가전, 여류작가전, 강원도미협전, 송년미술제
- 2000~. 개인전, 속초미협전, 신사임당대전 • 2000. 한국수채화대전
- 현)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소장, 관동대학교겸임교수, (사)한국미협 정회원, 속초미협 정회원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63번지 황보빌딩 2층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M. 010-4404-3696 E-mail. grchoi-11@hanmail.net



등꽃이 화사하게 피었다.
바람결에 날리는 꽃잎 사이로
사랑에 취한 달빛 곱게 내려앉는다.
보랏빛 등을 켜고 봄날이 온다.

최월순 作 수확의 기쁨
74 X 42 cm, 한지, 수묵채색



최 월 순

- 2007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특선
- 2014 강원미술대전 특선
- 2015 공무원미술대전 특선
- 2016 서울인사미술대전 우수상
-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회원
- 설악한국화동우회 먹노리 회원



백두산 여행

유난히도 무더웠던 2016년 7월 여름.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보여준다는 백두산 천지 관광길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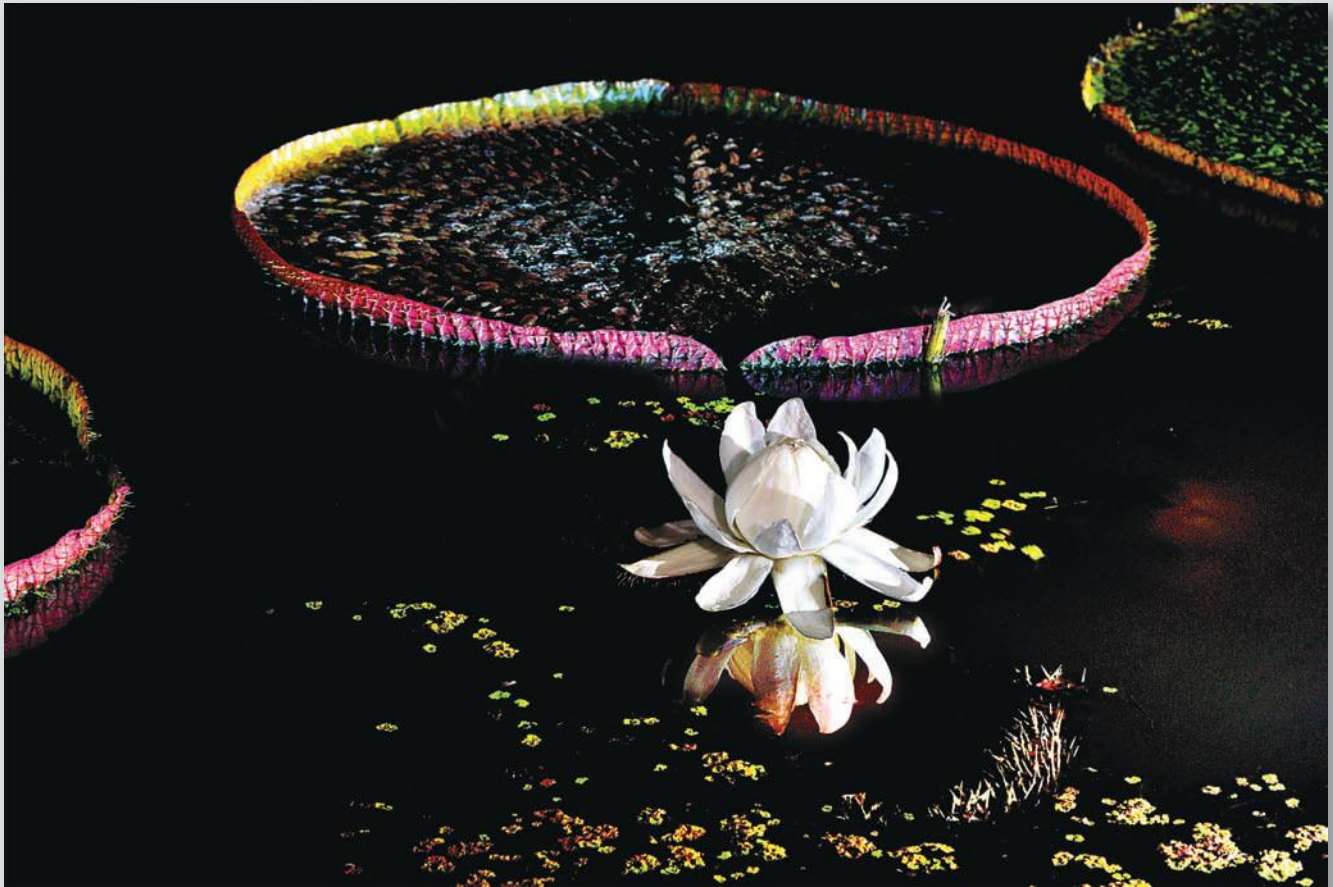
내 삶에서 그리 공덕 쌓은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아 내심 걱정을 하면서...

야생화가 만발한 군락지를 지나 1,442계단을 힘겹게 올라 서파의 천지가 눈에 들어온 순간, 아! 하는 탄성과 함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사진가로서 흥분된 감정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서파를 보았으니 북파까지 본다는 건 욕심일거라 여기며 다음날 기대 없이 북파 길에 올랐다. 끝없이 이어진 하얀 승합차의 행렬이 마치 흰개미 군단의 이동처럼 보이고 구불구불 올라가는 길에서 백두산 주변의 화산 석과 희귀종의 야생화를 감상하면서 정상에 올라 그날만 개방했다는 A코스를 운 좋게 파노라마로 담아보았다. 서파는 주변경치가 야생화와 초원으로 이루어진 따뜻한 어머니 품속이라면 북파는 돌과 바위의 질감이 거칠고 독특한 거친 세월을 견뎌낸 우리의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느낌을 내 앵글에 담아서 오늘 작품으로 선보이게 된 것이 기쁘다. 우리의 영산 백두산, 우리 북녘 땅을 밟고 다녀올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여행이었다.



고 명 녀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경동대 사진 강좌 수료
- 교동 디카 사진 강좌 수료
- 노학동 사진 강좌 수료
- 2011년 대전광역시 한빛사진공모전 가작
- 2013년 관광인제전국사진공모전 은상
- 2013년 양양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 2015년 강원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가작
- 그 외 다수 전국사진공모전 입선
- 2016년 5인5색 사진전(속초시립박물관)



해마다 사진사들은 빅토리아 연꽃을 촬영하기 위해 관곡지로 모여든다.

아마존이 원산지이다. 잎은 1~2m, 꽃은 25cm정도, 개화시간은 야간 10시부터 2~3시 사이 꽃이 피며, 첫날은 흰색으로 피었다가 둘째 날은 빨간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화려하게 대관식을 마치고 동이 트기 전에 물속으로 잠수한다. 촬영장비로 망원렌즈, 삼각대, 릴리즈, LED렌턴이 필수인 것 같다.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김 용 환



힘겨운 산행 끝 눈앞에 펼쳐진
정경은 가히 장관이었다.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모두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음에 안타깝지만
설악의 울산바위 위 흘러가는 구름 되어
자유로운 영혼으로 끝없이 날고 싶었던
행복한 순간이었다.



윤진순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설악산과 동해바다 근교의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에서 매년 "인류 무형문화유산 기사"를 주제로 하는 말을 달리면서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는 기사(騎射)대회다.

기사는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활을 순발력 있게 쏘아 과녁을 맞히는 무예로서, 말과 사람 그리고 기술의 삼위일체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에서 기사는 무예와 스포츠로 세계인이 어디서나 함께하는 전통스포츠로 계승, 발전되어가고 있다. 특히 높은 장대 위의 상단 목표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말을 빨리 달려서 상체를 틀어 활을 과녁에 쏘는 이방인 여기사의 기백과 순발력의 순간을 카메라 뷰 파인드에 담아보았다.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

최 수 흥



무릉도원

길림성 안도현경내에 6인구라는 마을이 있다.
독특한 자연경치는 앞으로 유람지로 탈바꿈할 전망이 보입니다.



방윤(方潤)

- 길림성사진작가협회 회원
- 연변사진작가협회 회원
- 훈춘시사진작가협회 비서장



챔피언은 누구?

해마다 중국 내몽골 각지의 초원에서 나담운동대회가 개최된다. 경마는 몽골족 전통적인 경주 항목으로써 널리 환영과 주목을 받고 있다. 경마 챔피언은 높은 상금을 받게 된다.

속초사진작가협회와 훈춘촬영가협회 회원 작품 게재

속초사진작가협회(회장 김성학)와 훈춘촬영가협회(주석 허선행)가 지난 7월4일 오후5시 훈춘시 명문호텔6층 대회의실에서 「한·중 촬영문화예술 교류 합의서」를 체결, 양국 촬영문화예술 교류활동을 매년 한 번씩 진행하고 대표단 파견 상호교류 방문 시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속초예술16호 지면에 훈춘촬영가협회 회원들(주석 허선행, 비서장 방운)의 사진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햇빛은 두만강반을 비춘다

두만강은 중국과 조선 양국의 경계 하천이다. 아름다운 강물은 양안 풍요로운 땅을 적셔주며 인근지대 수많은 생명을 양육하고 있다.



허선행(許先行)

- 중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길림성사진작가협회 이사
- 연변사진작가협회 부회장
- 훈춘시사진작가협회 회장

혼자 국수를 삶으며

김 춘 만

아내도 아이들도
별로로 치는 국수를
대낮에 혼자 삶는다.

두어 번 팔팔 끓여서 찬물에 넣는다.

잔칫날 온 동네가 둘러앉아 먹던 국수
생일날 온 식구 두레 반에서 먹던 국수를
혼자서 건진다.

흐느적거리던 생각의 올들이
여남은 개 씹 주르륵 건져지고
끓어지지 않은 면발들은
일제히 고개를 든다.

국숫발은 차가운 물속에서
두어 번 곤두박질치더니
조금 더 질기고 긴
생각의 올들로 타래를 짓는다.

아무도 모르는 이 시간에
혼자 대하는 한 그릇의 그리움
면발처럼 가늘고 긴
구수하고 질긴 날들을
후루룩 거린다.



김 춘 만

1988년 월간문학신인상(시 부문) 등단

속초문협 및 갈매 동인 고문

시집 '어린생명에게도 그늘을 던져야 한다' 외 2권

탕자

조 인 화

울타리가 낮은 십일월이 옷깃을
서성일 때쯤
먼 곳을 떠나는 가시와 싸리나무와 노란 열매가
추위 앞에 선다
언제부터였는지 물빛 라일락 잎을 따라
올라가면 운봉산
그 산에서 만난 건 참꽃이거나 문둥이나
그런 것이었지만
나와 함께 내려온 산은 송지호 한편에
서있었다
그래 잊은 건 아니나 없다
운봉산처럼 만날 수 있는 실루엣뿐
탕자나무 앞에 섰을 때의 서늘함뿐
아주 소소한 기억의 열매이거니
탕자를 판다



조 인 화

속초문협 및 갈매 동인 회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정 영 애

직설적으로 막고 선
저 완강한 거절
벽과 한통속이 된 문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벽
단호한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가
딱 한 번만
죄 짓고 싶어
금지된 벽을 기어코 넘어
출입금지와 관계 갖고 싶어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가
휘파람 불고 싶어
기분 나쁜 명령어에
온몸으로 불복종하고 싶어



정 영 애

2008년 동양일보 지용문학 신인상 등단
속초문협 및 갈매 동인 회원

나의 바코드

송 현 정

순간에 실수로 구급차에 실려가
검사를 받았다
엑스레이 시티
그리고 나를 해부하기위한
모든 장비들 통과하며

몸 하나 간신히 통속에 누워
소리 듣는 소리로
살면서 지은 죄 다 불란 다
무시무시한 투시력에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고해성사하듯 일러 바쳤다
그 한때 몰래한 짝사랑까지도

실핏줄에 엉켜있는 비밀을 캐듯
세상에 흘리고 다닌 암호들을
억울함과 설움에 분노를 삭이며

그러나 아직도 모른다
그 비밀번호를



송 현 정

1998 시대문학 시 등단
속초문협 및 갈매 동인 회원

눈

최효선

하연화 할머니는 올해 76세로 곱상하게 생기셨고 얌전하신 분이시다. 부산이 고향이신데 둘째 아들이 속초에 살고 있어 이곳에 계시는 날이 많아 밥 사랑 공동체에서 매일 점심을 드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통 뭇지를 못하였다.

초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유월 초, 할머니가 공동체에 점심을 드시러오셨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붙잡고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쭙니까 내 얼굴만 뵈고 말쑤이 없으셨다.

노인 분들을 매일 대하다보니 이제는 눈빛만 보아도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난 할머니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감지 할 수 있었다.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니 치매증상이 많이 진전되신 것 같아 보였다. 반찬만 계속 드시다 밥만 연거푸 드시는가 하면 주변을 살피시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식사를 마치신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여쭙었더니 그제야 “부산 큰 아들네 갔다 왔지” “거기서 재미있게 지내셨어요?” “맨 날 혼자 있어서 무서워”

“내일도 오셔서 식사하시고 다리 아프시면 물리치료도 하세요.”

살짝 웃으시곤 집으로 돌아가셨다. 급식을 마치고 자원봉사자들도 다 돌아간 후 잔일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그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밥 먹으러 왔지. 밥 안줘?” “조금 전에 진지 드셨잖아요.” “아 참 먹었지. 내 정신 좀 봐”하시더니 쑥스러운지 얼른 나가셨다. 할머니가 나가신 후 나의 경솔함을 후회하였다. 미안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밥을 차려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정리가 끝난 후 내일 급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시장을 가는데 그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를 배회하고 계셨다.

“할머니 더운데 왜 밖에 나오셨어요?”하고 여쭙었더니 뵈고 쳐다보시며 하시는 말쑤이 “우리 집이 없어졌어.”

집을 찾지 못하시는 할머니를 집 앞 층계까지 모셔드리면서 걱정이 앞섰다.

이튿날 아침 식사준비가 한창인데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이셨다.



최효선

속초문협 및 갈매 동인 회원
시집 '사랑하며 감사하며' 외 1권

식탁에 걸레질도 하시고 말씀도 얹럽하게 잘하셨다.

그날 오후 그 할머니 머느리가 다급히 찾아와서 어머님을 못 봤느냐고 했다.

사연인 즉, 다섯 살 손녀딸을 데리고 나가셨는데 손녀딸은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집에 안 돌아오신 것이다.

함께 동네를 몇 바퀴 돌았는데도 행방이 묘연하였다.

아들 내외가 차를 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것을 보고 시장을 다녀왔는데 할머니가 밥사랑 공동체 문 앞에 앉아계셨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손녀딸이 없어졌어.”

“집에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근데 어디 계셨어요.” “집에 있었지” “집이 어딘데요?”

그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르친 곳은 문이 반쯤 열린 옆집 보일러실이었다.

제2회 훈춘청소년문예대회 및 합동공연

속초예총(회장 정봉재)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훈춘 용원공원, 영국원, 제4소학교에서 제2회 훈춘청소년 문예대회와 합동공연을 벌였다. 정봉재 회장, 장규호 국제교류단장, 백일장 심사위원 3명, 사생대회 심사위원 2명, 사진촬영대회 심사위원 3명 등 총 15명(예총 13명/속초시축제위원회 2명)이 5박6일 동안 속초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를 방문,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돌아왔다.(편집자 주)

■ 제2회 훈춘 청소년 백일장

제2회 훈춘청소년 백일장이 7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훈춘시 용원공원에서 훈춘 제1실험소학교, 4소학교, 5중학교, 6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문 시제로 소학교 저학년은 「엄마」, 「나의 즐거운 일요일」, 「동요」, 소학교 고학년은 「듣고 싶은 목소리」, 「비가 내리던 날」, 중학교는 「아름다운 추억」, 「감동적인 한순간」,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 택일해 진행하였다. 소학교 253명, 중학교 99명 등 총 응모작품 352점을 속초 문인협회와 문련 작가협회 각 3명씩 6명이 심사해 대상 2명, 금상 4명, 은상 4명, 동상 4명, 장려 8명, 입선 85명 등 총107명이 입상했다.

심사 소회로 이 청소년들이 이대로만 자라준다면 글로벌 세대에서 중국어, 한국어, 나아가 영어까지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월성이 큰 힘이 될 희망이라고 보았다.

■ 훈춘예술단과 속초국악협회 합동공연

중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훈춘시 유치 기념 합동공연이 7월 1일(금)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훈춘시 영국원에서 열려 속초국악협회 박치영 회원(속초예총 감사)이 설장구, 부포놀이 공연을 벌여 중국 전역에서 모인 생활체육탁구선수들과 훈춘시민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받아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의 국악수준을 알렸다.





■ 제2회 훈춘 청소년 사생대회



제2회 훈춘청소년 백일장이 7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훈춘시 용원공원에서 훈춘 제1실험소학교, 4소학교, 5중학교, 6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총 응모작품 300여점을 대상으로 속초미술협회와 문련 미술협회 각 3명씩 6명이 심사한 결과 대상 2명, 금상 4명, 은상 4명, 동상 4명, 장려 8명, 입선 85명이 입상했다.

이날 제법 무더운 날씨여서 그런지 그림 그리는 자녀의 얼굴이 행여 햇볕에 그을릴까 옷을 벗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대회를 마치고 미니 크로키-북과 색갈볼펜을 참여선물로 주었는데 작은 선물임에도 아이들이 무척 행복해했다.

■ 제2회 훈춘 청소년 스마트폰 촬영대회





제2회 훈춘청소년 스마트폰 촬영대회가 7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훈춘시 용원공원 일대에서 훈춘 제2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총 응모작품 290여점에 대해 속초사진작가협회 3명과 문련 촬영가협회 3명 등 6명이 심사해 대상 2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5명, 입선 30명이 입상했다. 1회에 비해 대체적으로 좋은 작품들이 출품돼 6명의 심사위원들이 입상작을 뽑는데 열띤 토론을 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였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김향 학생(훈춘 제2고중1-4)의 호수에 비친 반영을 담은 사진은 오랜 시간 사진을 찍은 전문 사진가들도 찍기 쉽지 않은 사진이었고 역시 대상을 수상한 박해연 학생(훈춘 제2고중1-3)의 구름을 뚫고 위를 향해 비추는 빛 오름과 도심의 조화는 평상시 만나기 쉽지 않은 장면을 어린 학생이 순간 포착해 담은 수작이라고 볼 수 있었다.

■ 시상식

제2회 훈춘청소년 문예대회 시상식이 7월 3일(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훈춘시 제4소학교 강당에서 훈춘 시민 및 수상학생, 조선족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백일장 대상에 리진희양(5중 7-1, 속초시장상)과 황림단양(1실험소학교 6-3, 훈춘시장상) 등 총 107명, 사생대회 대상에 임준우군(1실험소학교 3-6, 속초시장상)과 김미령양(6중 8-1, 훈춘시장상) 등 총 107명, 스마트폰촬영대회 대상에 김향양(제2 고급 중학교 1-4, 속초시장상)과 박해연양(제2 고급 중학교 1-3, 훈춘시장상) 등 총 44명이 각각 상장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수상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와 훈춘촬영가협회 촬영협약서 체결

「한·중 촬영문화예술 교류 합의서」 체결식이 7월 4일(월) 오후 5시 훈춘시 명문호텔 6층 대회의실에서 풍도 훈춘시위 문련 부주석, 정봉재 속초예총회장, 허선행 훈춘촬영가협회 주석, 김성학 속초사진작가협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속초 사진작가협회와 훈춘촬영가협회 간 촬영문화예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합의내용은 양국 촬영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매년 한 번씩 진행하고 대표단 파견 상호교류 방문 시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후 훈춘시위 선전부장 주재 만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속초사진작가협회 김성학 지부장이 훈춘시위 유림파 선전부장에게 속초시 풍경사진집을 선물했다.

속초예술





속초예총 제2회 훈춘시 문예대회 대상 작품 및 심사평

■ 심사평/사생대회

사생대회 대상(속초시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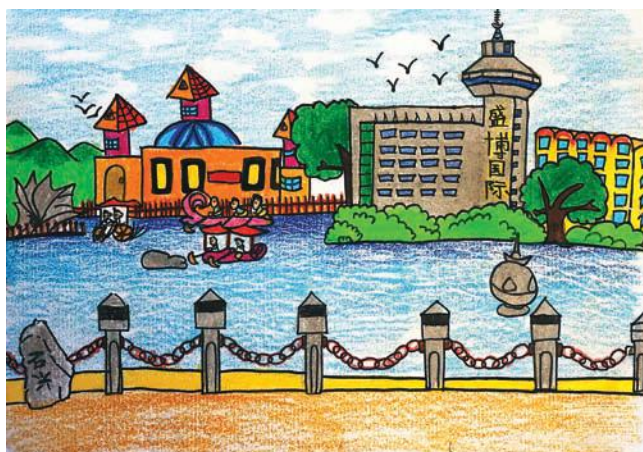
- 임준우(훈춘 제1실험소학교 3-6)

사생대회 대상(훈춘시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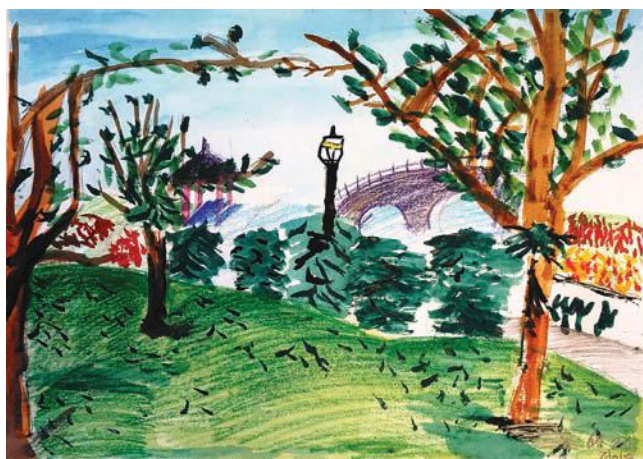
- 김미령(훈춘 6중 8-1)

7월 2일 중국 훈춘시 용원공원에서 사생대회가 열렸다. 참여 학생은 약 300여명이 넘었고, 어머니나 선생님들이 인솔해왔다. 날씨가 좋아 제법 무더운 날씨였는데 그림 그리는 자녀의 얼굴이 행여 햇볕에 그을릴까 옷을 벗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대회를 마치고 미니 크로키-북과 색갈볼펜을 참여선물로 주었는데 작은 선물임에도 아이들이 무척 행복해했다. 다양한 주제였음에도 아이들 작품소재는 그리 다양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곳 학생들의 작품엔 맑고 순수함과 진솔함이 한 눈에 보였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부족해보였고, 상상력이나 창의력도 저학년이 더 나은 듯했다. 아마도 많은 체험이나 경험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돼 마음이 아팠다.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곳 청소년들이 한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성장해가길 바란다.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무국장 박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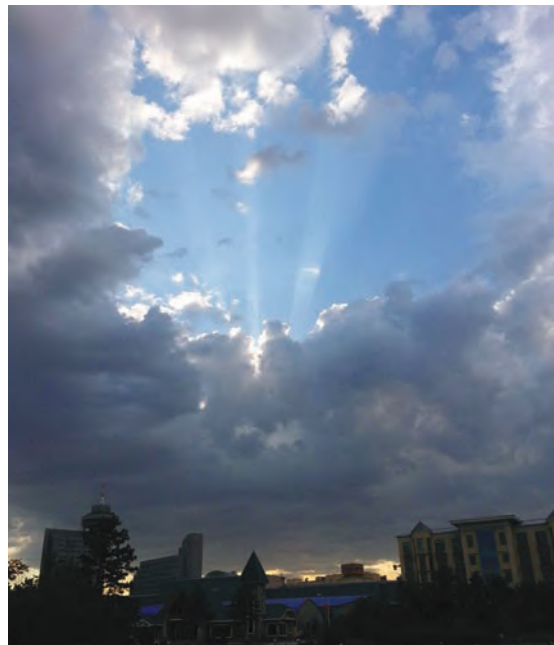
사생대회 대상(속초시장상) 임준우(훈춘1실험소학교 3-6)



사생대회 대상(훈춘시장상) 최현미(훈춘6중 8-1)



스마트폰 촬영대회 대상(속초시장상) 김 향(훈춘2고중 1-4)



스마트폰 촬영대회 대상(훈춘시장상) 박해연(훈춘2고중 1-3)

■ 심사평/스마트폰 촬영대회

스마트폰 촬영대회 대상(속초시장상)

- 김성희(훈춘 2고중)

스마트폰 촬영대회 대상(훈춘시장상)

- 황진선(훈춘2고중)

제2회 훈춘시 청소년 문예대회를 맞이해 훈춘 용원공원에
서 열린 스마트폰 촬영대회에 우리의 중, 고등학생에 해당
하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1인당 3장의 사진을 이때
일로 접수 받아 심사를 하게 되었다. 속초지부 3명, 훈춘 촬
영가협회 3명의 심사위원들이 약 4시간에 걸쳐 심사를 진행
했는데 1회에 비해 대체적으로 좋은 작품들이 출품돼 6명의
심사위원들이 입상작을 뽑는데 열띤 토론을 하는 등 많은 고
민을 하였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김향 학생(훈춘 제2고중
1-4)의 호수에 비친 반영을 담은 사진은 오랜 시간 사진을
찍은 전문 사진가들도 찍기 쉽지 않은 사진이었고 역시 대상
을 수상한 박해연 학생(훈춘 제2고중1-3)의 구름을 뚫고 위
를 향해 비추는 빛 오름과 도심의 조화는 평상시 만나기 쉽지
않은 장면을 어린 학생이 순간 포착해 담은 수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1회에 비해 수준이 향상된 것
을 볼 수 있었고, 벌써부터 제3회 대회가 기대된다.

(속초지부 지부장 김성학)

■ 심사평/백일장

7월 1일. 맑고 무더위. 훈춘 제4소학교에서 오후 2시 ~ 5
시 30분.

훈춘시 중학교 국어교사 3명, 그리고 속초문협 회원 3명
(이진녀, 조인화, 이은자) 모두 6명이 심사에 임했다. 초등
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결같이 글씨체가 정갈
함에 놀랐다. 책상이 아니라 무릎에 놓고 쓴 글씨임에도 마
치 타이핑 글씨 같았다. 특히 중학생들은 A4크기 원고지
2~3장을 꽉 채우는 끈기를 보였다. 내용에 들어가면 제목
이 어땠던 글 속에서 엄마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네들 부모님이 한국에 돈 벌러 간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
로 적어내고 있었다. 고마움과 각오까지. 우리가 어릴 적 울
며 읽었던 동화「엄마 찾아 삼만리」가 생각났다. 시상은 초등
과 중등으로 나누어 각기 대상1명씩, 금상4명(3,1) 은상4
명(3,1) 동상4명(3,1) 장려상8명(6,2) 입선85명 도합 107
명에게 주었다. 심사 소회로는 이 청소년들이 이대로만 자라
준다면 글로벌 세대에서 중어, 한국어, 나아가 영어까지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월성이 큰 힘이 될 희망이
라고 보았다.

(속초문인협회 이은자, 조선화, 이진녀)

아름다운 추억

훈춘 백일장 대상 리진희(훈춘 제5중학교 7학년1반)

나로서 잊지 못할 아름답고도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 추억이 있다.

어렸을 적, 우리 옆집에는 노인네 두 분이 자식도 없이 외로이 생활하고 계셨다. 나는 이 두 분을 무척 좋아한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이 집에서 살다시피 있었다. 아니 어떤 때에는 할머니의 팔을 베고 단잠에 소르르 빠질 때도 있다.

집은 별로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실용적으로 지어 언제나 깨끗하다. 게다가 마당에는 탐스럽고도 향기로운 화초들도 예쁘장하게 피어있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손바닥만한 마당이지만 할머니의 능란한 솜씨 덕에 꽃, 나무들이 보기 좋게 들어차 손바닥만한 마당도 한결 드넓어 보였다. 어느 여름날 아침엔 주발만한 작은 화분통의 나팔꽃 줄기에서 대접만큼이나 커다란 꽃송이가 피어나 내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었다. 진보라 빛의 우단처럼 고운 나팔꽃이었다. 매화, 라일락, 백화...

할아버지께서는 늘 향기가 짙은 꽃나무만을 심으셔서 그 좁은 마당 안은 마치 향수병처럼 향긋했다. 할머니는 음식도 잘 만드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만드신 간식 등을 마당의 평상위로 들고 나와서 여유로운 오후시간을 즐기곤 하신다. 아담하고 깔끔하고 향기로운 집,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집. 그래서 나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네 집을 드나들기를 즐겼다. 내가 이 집에서 놀러 붙다시피 한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심심하면 문갑서랍을 열고 노랑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서 50전짜리 두 잎을 골라주시곤 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졸라도 한 번에 두 잎만 주시지 그 이상은 주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다. “큰 집으로 이사 간다니 말릴 순 없지만...” 할머니께서는 앞치마로 눈시울을 훔치며 서운해 하셨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을 껌뻍이셨다. 그러나 나는 신나기만 했다. 새집, 그리고 큰 집으로 이사 가기 때문이다. 이사하는 날, 할머니께서 우리 짐차를 따라 새집까지 오셔서 눈코 뜰 새 없이 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셨다. 초생달이 떠있는 하늘아래 초저녁의 골목은 연푸르게 그늘져 있었다. 한길까지 따라나서서 나는 나도 알 수 없는 괴로움이 느껴졌다. 한길로 점점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에서 온 것임을 느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5년이 지난 후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으나 그분들은 내 가슴속에 깊은 생활교훈을 남겨주셨다. 생활을 사랑하고 깔끔하고 분수 있게 조용히 살아가라는 자세를 알려주셨다. 나의 어린 가슴속에 깊은 교훈을 남겨주셔서 고맙고, 이 교훈을 끝까지 새겨두겠다. 이번 일은 나로서 잊지 못할 아름답고도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추억이다.



속초등대 문화행사



높은 곳에서 홀로 외로움을 달래곤 했던 등대지기의 심정으로 속초등대를 오르는 방문객들이 해양문화공간에서 조용한 공연을 함께 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항로표지기술회, 속초예총의 주최·주관으로 마련한 「2016년도 속초등대 해양문화공간 공연」이 지난 4월 23일(토)부터 10월 22일(토)까지 6회에 걸쳐 속초등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속초등대에서 바다를 보다」란 주제로 각 달마다 부제를 달리해 진행했는데 '2016속초등대 4월 공연'은 지난 4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60분 동안 「속초등대 3시 희망歌」란 부제로 속초등대 야외공연장에서 속초연예예술인협회 소속 가수 김현미씨, 싱어 송 라이터 박강수씨의 감성어린 공연으로 첫 문을 열었다.

‘2016속초등대 5월 공연’은 「바다의 날」 특집으로 지난 5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80분간 속초연예예술인협회 소속 가수 MC수와 속초무용협회가





의 한국무용, 팝핀, 퓨전국악, 동호인 연주로 색소폰 연주단체인 설악드림 팝스 공연을 각각 벌였다. 특히 이날 속초문인협회가 속초등대 행사장 주변에서 시화전을 했고 속초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출사하기도 했다.

‘2016속초등대 6월 공연’은 6월 25일(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속초등대 4시歌」란 부제로 속초연예예술인협회 소속 가수 이재환씨와 인기가수 박강수씨가 출연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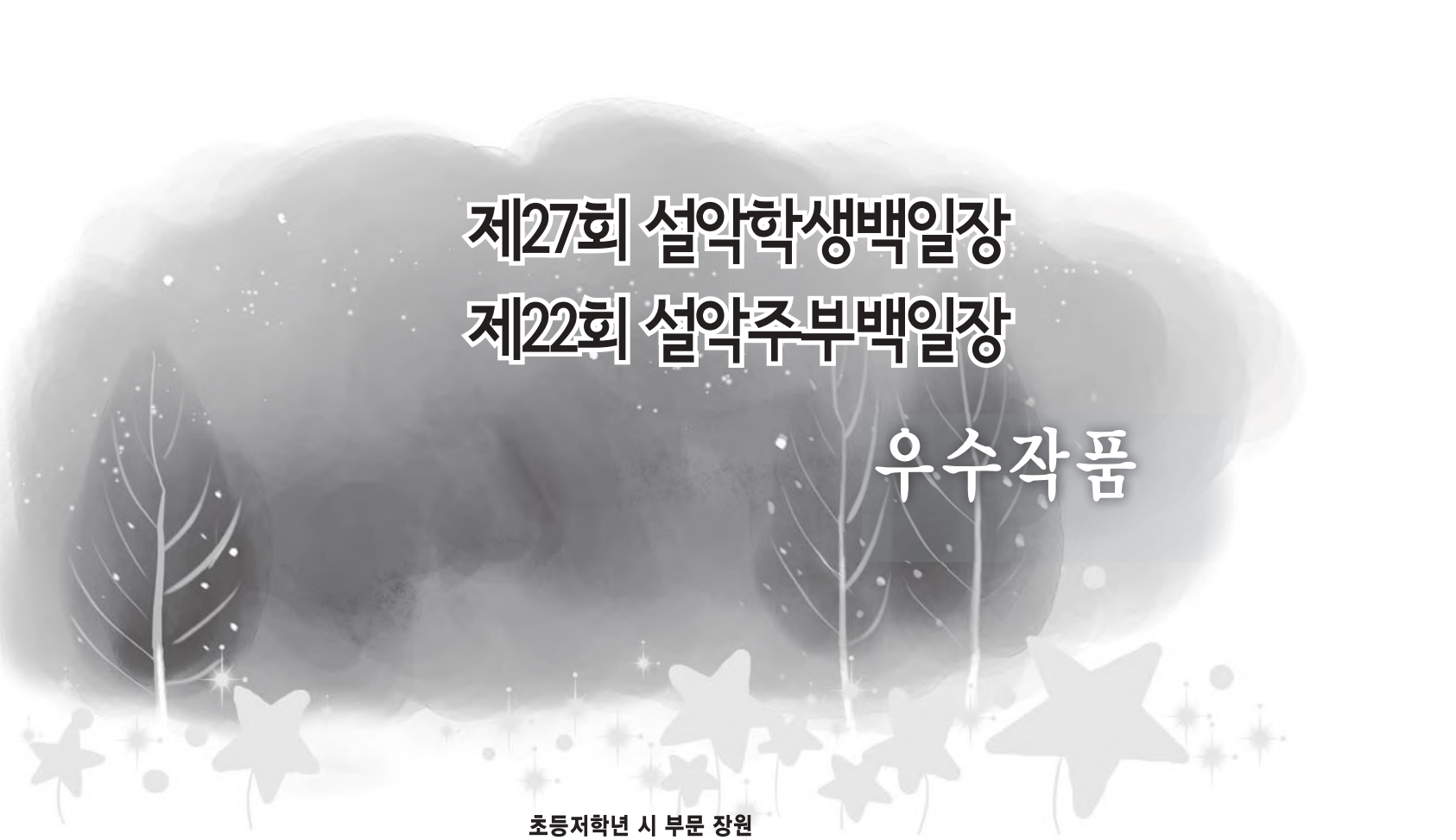
‘2016속초등대 7월 공연’은 여름특집으로 7월 23일(토)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바리톤 이규성 교수와 소프라노 조혜진 교수, 팝가수 남창훈씨로 구성된 혼성 팝페라 팀 「라비도르」, 동호인 연주로 클라리넷 연주단체인 「설악클라리넷 앙상블」이 출연했다.



8월 공연은 무더위로 쉬고 ‘2016속초등대 9월 공연’이 9월 24일(토) 오후 3시 속초연예예술인협회 소속 가수인 부부듀엣 풍금과 MC수, 속초음악협회 홍상기 부지부장&최원두 사무국장의 플룻&클라리넷 독주와 2중주, 바이올리니스트 이도영씨와 소프라노 박성예씨, 피아니스트 방보경씨가 출연해 속초등대에 어울리는 초가을 정취를 음악으로 전해주었다.



올해 마지막 공연인 ‘2016속초등대 10월 공연’이 10월 22일(토) 오후 3시 晩秋특집으로 열렸다. 짙어가는 가을에 잘 어울린 선율로 지난 7월 공연에서 환호를 받은 혼성 팝페라 팀 「라비도르」의 앙코르 무대와 각종 힙합공연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풍키몽키&엘리펀디 공연이 열렸다.



제27회 설악학생백일장

제22회 설악주부백일장

우수작품

초등저학년 시 부문 장원

동그라미

오호초등학교 3학년 1반 손 현 아

동글동글 공벌레
톡! 건들이면 다시 동글 동글

아기 다람쥐 골프공 삼아
나뭇가지로 톡 쳐서 풀숲으로

공벌레는 다시 기어서
집을 찾아
또 바람처럼 사라진다.

초등저학년 산문 부문 장원

풍선

중앙초등학교 3학년 2반 장 한 나

풍선이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네. 무슨 풍선일까?

아하! 웃음이 가득한 풍선이구나. 웃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어 준다. 하하하! 호호호! 웃음이 가득한 웃음세상이 되었네. 웃음 풍선은 지구를 돌아다니며 자기가 가진 웃음을 베풀네.

베풀고, 베풀고 하다보니까 가득가득한 웃음 지구 되었네.

웃음 풍선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은 즐거움과 웃음을 베풀네. 웃음 풍선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슬퍼서 우는 사람을 찾아서 웃음을 더 베풀네. 아픈 사람은 웃음 덕에 병이 다 낫고, 우울한 사람은 지혜와 즐거움 덕에 행복해졌네.

웃음 풍선이 웃음을 베풀다보니 바람이 빠져나가네. 웃음 풍선은 힘을 내서 웃음을 더욱 더 베풀네. 그러자 웃음 풍선이 부푸네. 웃음 풍선은 다시 웃음을 베풀네. 하하하! 호호호! 지구도 마법처럼 웃네. 웃음 풍선은 좋아서 더욱 더 베풀네.

사람들은 웃음 하나가 온 세상을 기쁘게 한다는 걸 깨달았네. 웃음 풍선은 베풀네. 사람들은 덩달아 웃음을 베풀네. 웃음이 온 세상을 바꾸네. 항상 베풀고 베풀네.

풍선아, 웃음 풍선아 너는 언제까지 웃음을 나누어 줄꺼니?

온 세상 웃음 나라 될 때까지...



초등고학년 시 부문 장원

의자 (부제 : 의자의 한 살이)

오호초등학교 5학년 1반 박 지 우

어느 숲에
나무 한 그루 동강 잘려

깎고, 다듬고, 못박고

그래서 제자리를
찾았네

거기서 아이들은
놀고, 먹고, 낮잠 자고...

그러다 오랜 세월 흘러
우당탕!

나무조각 되었네

나무조각으로
인형 깎고,
작은 책상 만들고,
물감으로 그림 그려

썸썸이 좋은
의자
의자의 한 살이

초등고학년 산문 부문 장원

노래

교동초등학교 4학년 2반 김 가 현

우리 엄마의 통화 연결음에는 ‘빛, 새, 나무, 바람의 빛깔, 산속 숨소리’가 담겨있다. 엄마와 통화되기 전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엄마의 연결음도 많은 사람들이 듣는 노래였었지만 얼마 전 방송되었던 동요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보신 후로 몇 달째 연결음은 동요만 흘러나온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요에 담겨진 예쁜 노랫말과 아이들의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다.

요즘 내 주위 많은 친구들은 아이돌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랩처럼 빠른 가사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거친 가사와 화려한 춤이 멋져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촌스럽고 단순하게 느낄 수 있는 동요의 노랫말이 참 좋다.

큰 목소리와 조리있는 말 솜씨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줍은 목소리로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부를때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몸에 배인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나와 내 친구들도 아름다운 가사가 담긴 동요를 많이 들어서 서로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중학생부 시 장원

사진

설악여자중학교 3학년 1반 김도윤

빛바랜 낡은 사진 하나
햇살이 그리움의 무게만큼 스며들어 풀처럼 눕고
그 속에 머물던 기억들은 저만큼 달려가
수목화가 되었다

마른 붓질하듯 조심스레 쓰다듬는 손등에는
거뭇한 세월의 흔적이 밤늦도록 떠다니고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시어들 같은 파스한 물무늬들이
미소로 번질 때 할머니의 세월은 여백을 채우듯
자잘한 민들레 홀씨가 되어 하늘을 날았다

그 속에 나보다 더 어린 아버지는
말갱게 닦아놓은 유리창처럼 투명한 눈빛으로
푸른 난무 이파리같이 출렁이며 머물러 있었다
마른 몸매에 등줄기 굽은 할머니의 시린 가슴
비릿한 봄 햇살을 끌어당기며 다독이듯

누에씨 같은 눈빛으로 나는 슬쩍 장단을 맞춰본다
“할머니 젊은 모습이 벚꽃 같네요.”
사진은 소리 없이 대를 잇는다

사진

설악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윤미연

내 휴대폰 갤러리에는 약800장이 넘는 사진들이 있다. 사진 속에는 유난히 소중한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파킨슨병을 앓으셨다. 잘 걸으시다가도 갑자기 피식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나길 반복하셨다. 그 때문에 항상 신발은 온전하지 못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싫었다기 보다는 할아버지의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가말던가 항상 그런 식이었다.

그러다 3년 전 여름, 할아버지는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셨다. 김진을 꼬박꼬박 받아오셨지만 초기에는 암세포가 폐의 뒤쪽에 있어서 알 수가 없었고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발견되었다고 한다.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한 순간에 시한부 환자가 되었다.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아셨다간 몸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끝까지 무관심했다.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실 때마다 귀찮아하며 싫은 티를 매우 많이 냈다.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는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한참이 지났던 것 같다.

길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학교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놀았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방학숙제를 열심히 해왔다고 칭찬해주셨다.

그리고 방과 후 3시 즈음에 갑자기 파랗던 맑은 하늘이 흐려지더니 구름이 비를 토해내듯 소나기가 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파란하늘로 변해있었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사촌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내 동생이 언제 학교가 끝나는지 묻는 내용이었고 나는 모른다고 답했더니 매우 화를 내더니 동생과 집에 가 있으라며 끊어버렸다. 나는 조금 의아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동생과 집에 왔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언니가 도착했고 언니의 얼굴을 보니 꽤 운 듯 보였다.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라는 말과 함께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다. 나는 분

위기에 휩쓸렸던 것일까 정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게 슬퍼서였을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계속 났다. 버스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다.

도착해보니 많은 꽃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눈물이 났다. 몇 시간을 계속 울다가 하루가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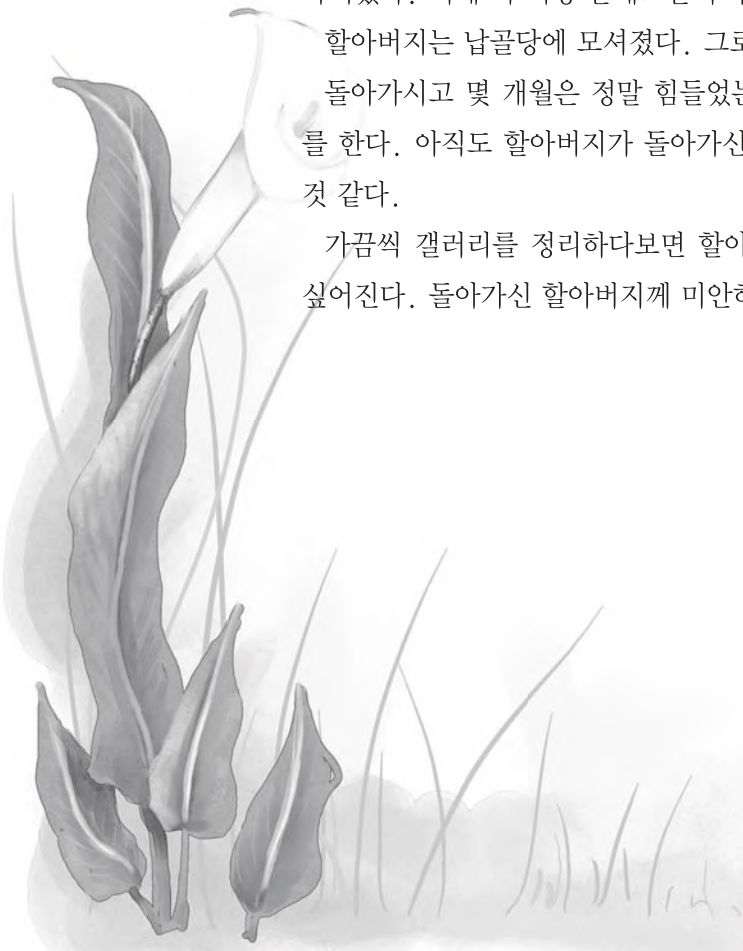
또 하루가 그냥 저냥 지나가고 마지막 화장 날이 되었다.

관 속에 있는 할아버지가 불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다. 정말 설 새 없이 눈물이 났다. 이제야 눈물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돌아가시기 전에 잘 대해드릴 걸 하는 후회 때문이었다. 정말 너무 후회가 되어서 나 자신을 많이 자책했다. 이제 더 이상 잘해드릴 수 없고 더 이상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납골당에 모셔졌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돌아가시고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웃으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아직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믿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멀리 여행을 떠나버리신 것 같다.

가끔씩 갤러리를 정리하다보면 할아버지 사진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도 뭉클해지고 보고 싶어진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미안하고 감사드린다.



고등학생부 시 장원

일년

설악고등학교 1학년 9반 구 나 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번 한 달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일 년도 무사히 끝나갑니다.
하지만 단원고 학생들의 하루는
오늘 하루가 불행히 끝났습니다.
이번 한 달은 아파하며 끝났습니다.
이제 일 년이 지나가지만 우리를 잊어갑니다.
잊지 맙시다. 작은 천사들의 희생을
가집시다. 작은 천사들에게 관심을
기억합시다. 4월 16일 세월호를



선물

설악고등학교 2학년 2반 방 현 지

선물'이라는 건 항상 기쁘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받을 때 모두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할 때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나는 비싼 물건보다 편지를 선물 받을 때 더 감동받는 것 같다. 친구들에게 농담으로 '내 생일 때 저거 사줘!'라고 얘기 할 때가 있는데 막상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해주는 것보다 편지를 써준 친구의 선물을 좀 더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래서 가끔은 미안해지기도 한다.

편지를 생각하면 항상 같이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다. 내 생일 혹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네 생각이 나서 써봤다며 꼭 읽어보라고 주는 친구인데 자주 받아보는 만큼 자주 감동을 받는다. 특히 그 친구가 써줬던 편지를 다시 읽어 볼 때는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한다. 만잔지 별로 안됐을 때, 1년 정도 되었을 때, 누구한테도 안했던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실수로 울렸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른다. 4년 정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함께 쌓은 추억이 꽤나 많았다는 걸 그 편지들을 읽으며 느꼈다. 내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과거의 추억이라는 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선무하는 그 친구의 편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늘 느낀다.

그 친구에게 받았던 편지 중에 가장 감동받고, 기억에 남는 편지는 작년 내 생일 때 받은 편지인데 가장 최근이라 기억이 나는 걸지도 모르지만 계속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다. '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한건 네가 처음이야. 나는 처음해보는 경험을 너랑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아.'라고 편지에 써 주었는데 나는 이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났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었고 기쁘고 고마웠다. 굳이 편지로 적어준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나 이거 처음 해봐'라던가 '나 ~~ 너랑 처음 해봤었는데'같은 말을 할 때가 있기는 했었는데 편지로 받으니 기분이 또 새로웠다. 하기 힘들 수도 있는 얘기를 나에게 가장 처음으로 해준 친구인데 고맙지 않을 수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을 이 친구와 친해지고 나서 알게 되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아끼지만 나에게 이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는 이 친구를 나는 어떻게 더 아끼고 고마워해야 하는지 많이 생각한다. 뭐가 고맙냐며 자기가 더 고맙다고 할 반응이 눈에 선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고마워하고 싶다.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선물이 있는 것 같다. 편지, 음식, 신발, 가방...

어떤 것이든 선물이 된다. '너는 내게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걸 생각한다면 사람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나, 부모님 또는 친구들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처럼 고마운 사람이다. 내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또 고마운 그런 사람들 말이다. 내가 '너'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준다면 얼마나 기쁠지 가늠할 수가 없다. 내가 힘이 되지 못하더라도 잠깐 행복 정도는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고 참 많이 느낀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다. 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날 선물처럼 고맙다고 느낀다면 분명 그게 내게 주는 선물일 것이다.



주부 시 차상

돌부리

오 선 희

우리 집 돌부리들

아들 돌부리

남편 돌부리

숙제 안하고 학원 안가는

아들 돌부리

담배 피고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돌부리

하지만 난 우리 집

돌부리들 때문에 살아간다네



주부 시 부문 장원

돌부리

김 선 자

따스한 봄 햇살이 유난히 좋은 어느 봄날, 드디어 용기를 내었다.

띵띠링~띠링, 컬러링이 울리고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여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순간 온몸이 긴장되었다.

4년 전 우리는 아이들 학교에서 학부모를 만났고 서로 마음이 통해 친해졌다. 학원을 운영하던 그분께 아이들을 맡기면서 10여년을 친하게 지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갔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면서 지내는 등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 친구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겼다. 그 당시 남편이 하던 일이 잘 안되던 즈음 학원에서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의뢰가 왔고 남일 돕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흔쾌히 승낙했고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선의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소통의 부재로 오해가 생겼고 나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그 일에 대응했다. 그분께 서운한 마음이 컸던 나는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내 마음의 생채기가 크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쪽에서 먼저 다가와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서운한 마음은 괴씸한 마음으로까지 변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지옥이었다. 그 분 집 쪽을 지날 때면 눈길이 갔고 가슴이 콩닥콩닥 불안했다. 하루, 이틀, 1달, 1년. 점점 내 마음의 돌부리는 커졌고 생채기가 난 내 마음은 더 무거웠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운한 마음은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그분이 그동안 베풀어준 마음 씀씀이 배려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했던 행동이 그분께도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의 돌부리만 큰 것이 아니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되었다. 세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면서 늘 먼저 손을 내밀고 보듬어주고 배려하라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더 못나보였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될 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꼭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루고 미루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먼저 전화를 걸었고 가볍게 들려오는 그분의 반가운 목소리에 우리가 언제 그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나 싶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커피숍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서로의 근황을 물으면서도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기로 하지 않았던가?

더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4년여의 긴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망설였던 이야기보따리를 풀면서 서로의 생채기를 치유

하고 마음을 보듬으면서 눈물짓기도 하였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진작 용기를 내지 못했던가? 이일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큰 돌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누구랑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



제51회 설악문화제

문인, 미술, 연극, 사진작가협회 주관해 성공리 마무리

속초예총이 주관한 제51회 설악문화제 각종 행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속초시 내 설악로데오거리 행사장에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속초예총은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문화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속초예총의 웰빙콘서트와 국제교류단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청소년민속예술단 초청 공연, 미술협회의 사자 탈 만들기 체험, 연극협회의 옛 거리 재현, 사진작가협회의 스마트폰 사진전시회, 문인협회의 시화전 등이 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편집자 주)



설악문화제 전야제 ‘웰빙콘서트’ 개최

속초예총 주관의 제51회 설악문화제 전야제가 지난 10월 7일(금) 밤 8시부터 시내 S호텔 광장에서 비가 오는 중에도 ‘웰빙콘서트’를 개최했다.

전야제 거리페스티벌 진행 중에 오락가락하던 비가 밤 8시부터 본격적으로 내렸지만 공연을 기다리던 많은 청소년 관객들로 인해 무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속초여고, 설악고, 속초고 연합팀 인터크루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라붐댄스, YMCA, 엘리펀디 공연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이모닝이 출연해 폭우 속에서도 우비를 입은 청소년들과 신나는 무대를 꾸몄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청소년민속예술단 공연

속초예총 국제교류단은 이번 설악문화제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청소년민속예술단을 초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8일 개막식과 10월 9일 보조무대공연에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으며 또한 거리퍼레이드에 러시아 전통복장을 입고 참가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속초사진작가협회 스마트폰 사진 전시회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해 심사를 통해 입상한 스미트폰 사진 21장과 옛 사진 6장 등 총 27장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전시했다.

올해 특히 당선작 사진 팸플릿을 만들어 비치했고 많은 분들이 사진전시회를 보며 내년 공모에 응모할 의향을 보이기도 했다.



속초미술협회 사자탈 만들기 및 문인협회 시화전

속초미술협회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자탈 만들기' 체험행사가 지난 10월 8일~9일 양일간 시내 로데오거리 축제장 부스에서 열려 사자탈 장식하는 볼 클레이가 동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사자탈 만들기 체험에 흠뻑 빠졌고 특히 외국인 가족도 우리 전통 민속인 사자탈 만들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사자탈 만들기 체험장 부스 외곽에 그물을 쳐 대형 사자탈과 중간 크기의 사자탈, 수십 개의 작은 사자탈을 걸었는데 대형 사자탈을 배경으로 가족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았다.

특히 블라디보스톡 청소년민속예술단원들은 사자탈 체험에도 참가해 직접 사자탈을 만들어보기도 했고 이병선 속초시장은 물론 정봉재 속초예총회장과 함께 대형 사자탈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편 속초문인협회 주관의 거리시화전도 지난 10월 8일~9일 양일간 시내 로데오거리 축제장 속초예총 부스 인도에서 열렸다.



속초연극협회 ‘그땐 그랬지’ 운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옛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땐 그랬지’ 코너를 만들어 속초연극협회가 운영했다. 속초 집, 옛 교실, 대지다방, 우물가, 이동사진관 등 5개 체험부스를 재현해 인기를 끌었다.(편집자 주)

사진설명1. 속초집 재현

지난해 재현했던 <속초집>이란 선술집 세트를 올해도 설치했는데 지난해와 달리 실제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아쉬웠다고 한다.



사진설명2. 교실 재현

7~80년대 교복시대 교실도 재현했다. 당시 교과서, 난로, 양푼이 도시락, 교모, 교복, 교련북, 완장, 칠판, 백묵, 책걸상 등을 비치해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체험사진을 찍느라 북새통이었다. 백묵으로 칠판에 낙서하는 장면과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용 교복과 교련북을 입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사진설명3. 대지다방 재현

7~80년대 당시 대지다방을 재현했다. 뮤직-박스 안에서 DJ가 신청곡을 틀어주고 레지가 커피를 배달하는 풍경과 다방 벽에 그 당시 영화포스터는 물론 당대 최고의 뮤지션 사진을 붙여 음악다방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설명4. 당시 우물가 재현

6~70년대 당시 우물가도 재현해 펌프와 두레박을 체험하는 아이와 가족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오징어 조형물을 줄 위에 걸어놓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특히 두레박을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사진설명5. 이동사진관

60~70년대 동네어귀를 돌며 꼬마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동사진관.

예전의 이동사진관은 손수레 위에 금강산 풍경 등을 그려 놓고 기념사진을 찍어줬다. 속초등대 그림을 배경으로 '속초-1호' 배를 타고 이동사진관에서 추억의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았다.



제51회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예총, 속초사진작가협회 주관

제3회 OLD & NEW 스마트폰 촬영대회 및 전시회



제51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해 제시된 6장의 옛 사진 속 속초의 길과 건축물에 담긴 추억을 스마트폰에 담은 제3회 올드&뉴 스마트폰 촬영대회 심사결과 대상에 이성몽씨, 금상에 김서영씨, 은상에 김영화씨, 김명기씨 2명, 동상 이지혜, 김상유, 김현우, 천창환, 홍춘희, 강연자씨 6명, 특선에 유재식씨, 장려상에 함연화, 이재희, 강명희, 이호진, 이재욱, 강호선, 김은숙, 이한중, 김성준, 김보영씨 10명 등 총 21명이 입상했다.(편집자 주)



제51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해 속초의 변화된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제3회 OLD&NEW스마트폰 사진촬영대회 심사 결과 상금 1백만원(문화상품권)의 대상은 이성몽씨(조양동), 금상은 김서영양(조양동), 은상은 김영화(노학동), 김명기씨(조양동), 동상은 이지혜, 김상유, 김현우, 천창환, 홍춘희, 강연자씨, 특선은 유재식씨, 장려상은 함연화, 이재희, 강명희, 이호진, 이재옥, 강효선, 김은숙, 이한중, 김성준, 김보영씨가 각각 차지했다.

강원문화재단과 속초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속초지회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가 주관한 제3회 스마트폰 사진촬영대회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 결과 40여명 총 120여점의 사진이 접수됐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이하 문화상품권), 금상은 상금 50만원, 은상은 상금 각각 25만원씩, 동상은 각 10만원씩, 특선은 5만원, 장려상은 각 4만원씩 지급했



다. 수상한 입상작품은 팸플릿으로 제작되어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속초시내에서 열린 제51회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전시회를 열어 많은 속초시민과 관광객들이 사진전시회를 관람해 옛 추억을 공유했다.



속초시청 전경



은상(김영화)

속초시청 청사 1967년도 모습이다. 「1967년은 위대한 전진의 해」란 슬로건이 3층에 붙어있다. 지금 시청사와 비교해보면 3층 들어간 건물을 2층과 맞췄고 양옆으로 사무실이 증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사 앞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봐 준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모습이다. 청사가 비좁아 지금의 강원진로교육원 터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신관 5층을 신축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동명동 성당



은상(김명기)

동명동성당 모습이다. 춘천교구 소속의 가톨릭 천주교회이다. 지난 52년 10월 5일 양양본당에서 분리돼 설립되었다. 초대 신부로 맥고완(원) 파트리시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속초지방은 병인박해 이전부터 있었던 상도문리 교우촌으로부터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었다. 양양군 도문면 지역인 상도문리는 1914년 도천면에 편입되기 전 싸리재라 불리던 지역으로 싸리재 교우촌을 중심으로 공소가 설립되었다. 최문식 베드로 신부가 부임해 도문동 본당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본당 소재지 이전으로 다시 도문동 공소가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6.25전쟁으로 공산치하에 있으면서 고통을 겪다가 1954년 속초지역 탈환으로 수복되었고 휴전 협정에 임박해 맥고완 신부가 부임하면서 고성군과 속초시 전역을 관할하는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1952년 불하받은 대지에 성당과 사제관 신축공사를 시작해 1953년 8월 15일 완공하였다. 건축양식이 독특해 젊은 건축가 지망생들의 단골 답사코스로 인기가 있는 건물이다.



설악산 입구 옛 내물치 마을



동상(홍춘희)

옛 내물치 마을 모습이다. 지난 77년 태풍으로 마을이 쓸대밭이 되어 외물치 마을에 집을 지어 순차적으로 집단이주하게 되었다. 80년대 설악산이 수학여행 등으로 국민관광지로 상종가를 칠 때 우리는 주로 설악산 입구라고 부르던 곳이다. 시외 버스를 타고 강릉에서 속초로 들어올 때면 어김없이 정차하는 곳이 바로 설악산 입구였다. 몇 번의 공원 조성을 거쳐 이젠 설악해맞이공원으로 이름이 정착되었다.



옛 수복탑

설악컬러디지털사진관 대표 이신자 기증사진

설악컬러디지털사진관 대표 이신자씨가 지난 2013년『속초市政 50년史』제작에 사용하라고 기증한 옛 수복기념탑 사진이다. 일명 수복탑 옛 모습이다. 이 탑은 1954년 3월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 후방의 반공계몽인 박성주 등이 피난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해 1



금상(김서영)

군단의 도움으로 1954년 5월10일 건립했는데 안타깝게도 1983년 4월27일 새벽 강풍으로 탑 위의 모자상(母子像)이 부서져버려 수복탑 복원운동이 일어났다. 1983년 수복기념탑 복원 건립위원회가 발족해 시민 성금 4천여만원과 시비 1천여만원으로 원래 이 모자상을 조각했던 박칠성에게 수복기념탑과 모자상 등 전체를 복원하게 해 그 해 11월17일 제막식을 가졌다. 복원된 이 탑은 좌대 폭4m, 탑신 높이7m, 모자동상 높이 2.55m, 총 탑 높이9.55m로 원형보다 2m가량 높다. 원형이 날씬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혀 조형미 면에서 지금의 탑보다 낫다고 본다. 수복탑과 해안초소, 백사장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지금은 매립돼 도로에 밀리고 회전교차로 조성에 밀려 수복탑 공원이 많이 쪼그라져 들었다.



옛 속초수협 건물과 쇠빙기



동상(김상유)

60~70년대 파시로 대변되는 동해안 최고의 수산도시, 속초에서 경제의 중심역할을 했던 게 속초수협이었다. 어판장을 주된 생업으로 살아온 까닭에 수협 일대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지금이야 확장됐지만 그 시절 도로 폭이 4m안팎에 불과한 노상에 수산물을 가득 싣고 내달린 리어카꾼, 건어물 도매상들, 어부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 경매사들, 선구점을 드나드는 선장들, 다방, 복어 등 수산물을 안주로 하는 선술집 등 수협어판장 일대가 호황을 누렸다. 70년대 속초경찰서 입출항통제 초소 즉, 임검소도 위치해있었다.



청대리 사진

제4회 장릉사진공모전 전창선 출품작



대상(이성몽)

속초문화원이 개최한 제4회 장릉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전창선씨의 사진이다. 지금의 설악고등학교 뒤 청대산에서 찍은 사진인 듯하다. 사진을 보면 설악여자중학교가 보인다. 설악여자중학교가 지난 95년 12월28일 지금의 신축교사(校舍)로 이전했으니까 이 사진은 90년대 초반 사진인 것 같다. 설악빌리지와 설악고등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청초호가 매립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초시생활체육관 옆 아남프라자가 공사 중에 있다. 무엇보다도 매립 전 청초천 하구에 수양버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게 지금 봐도 너무 좋다. 당시「새 박사」윤무부 교수가 철새 촬영을 위해 자주 찾던 초우가든 식당도 생각난다.



동상(강연자)



동상(김현우)



동상(이지혜)



등상(천창환)

한국예총 속초지회 올해(2016년)는

한국예총 속초지회 | 편집부

■ 속초예총 장규호 국제교류단장 「응고집전」 춘천 공연 출연



속초예총 장규호 국제교류단장이 지난 1월 9일(토) 오후 3시 춘천시 효자동 축제극장 몸짓에서 「응고집전」 공연에 출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도내 원로 연극인들 가운데 강원연극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주역이었다. 강원지역의 연극 부흥기를 이끌어온 원로 연극인들이 다시 결합해 연극을 통한 사회문제 인식, 예술을 통한 치유의 힘을 재확인했고 이들의 연령과 사회적 위치에 맞는 새로운 양식의 연극에 도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속초예총 감사 수감



속초예총은 1월 21일(목)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2015년도분 서류

등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받았다. 이왕선, 박치영 감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2015년 서류 일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기도 했다.

■ 속초예총, 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속초예총 대의원들은 1월 30일(토) 오후 2시 춘천 아트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제55차 강원도예총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2015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6년 회부납부(안), 기타 안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속초예총 제1차 이사회



속초예총 제1차 이사회회의가 2월 15일(월) 오후 4시 속초문화원 문



화사랑방에서 재적이사 32명중 (25명)참석 (4명)위임 등 29명이 참석해 2015년도 감사 결과보고, 2015년도 주요 업무 경과보고, 제27차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인 2015년 수입·지출 결산(안),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타 안건 등 3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임시총회

속초사진작가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임시총회가 2월 20일(토) 오전 10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임회장은 초대지부장을 지낸 김성학씨가 취임했다.

■ 속초예총 제27차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27차 정기총회가 2월 22일(월) 오후 4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48명에 출석대의원 39명(참석 26명, 위임 13명)으로 개회, 전차회의록 낭독과 이상선 감사의 감사보고, 2015년 주요업무 경과보고에 이어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2015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 안건 승인의 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민체전 개최기념 문화예술행사 지원예산 배분에 대해 8개 협회 회장들이 거부하고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올해 바뀐 임원진 소개에 이어 속초예총의 역사를 재조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6년 운영비 일부를 후원금에서 일부 전출해 사용하도록 의결했고 속초예술지 16호 출판기념회 및 속초예술인의 밤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속초예총 차원에서 가칭 〈속초예술인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 속초예총 회장단, 속초시장 면담

속초예총 회장단이 3월 11일(금) 오후 3시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속초시장을 면담했다. 제51회 강원 도민체전 기념 속초종합예술제 예산 6천만원 중 속초예총 예산 38,000천원을 요구했고, 속초예술인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3가지 방안을 시장에게 제시했다. 공원 시비, 기념물, 공적비 전수조사 후 항구적인 문화예술인 공원조성과 문화예술 공원 조성방안 수립 후 조례제정 통해 지정 및 영랑호 등 일부 국유지 공원 터 매입 후 종합문화예술인 공원 조성 검토를 요망했다.

■ 속초예총 정봉재 회장 훈춘 출장

속초예총 정봉재 회장이 올해 열리는 제2회 훈춘청소년문예대회



일정과 프로그램을 협의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훈춘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속초국악협회 예술교류단도 이 기간 동안 중국 훈춘을 방문, 훈춘시문화관에서 훈춘예술단원들에게 모듬북, 사물놀이 등을 교육하고 통소를 배우는 등 두 도시 예술단체간 전통예술캠프를 통해 상호 공감과 소통을 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회원 합동 출사

속초사진작가협회는 지난 3월 26일 동강할미꽃에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정회원과 준회원들과 함께 단합전 형식으로 합동 출사했다.

■ 2016년도 3월 회장단 회의



2016년도 3월 회장단 회의가 30일(수)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은 제51회 강원 도민체전 기념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를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엑스포상징탑 광장과 문화회관대강당, 전시실 등에서 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는 속초시가 문서로 훈춘교류사업 발전 방향으로 「속초시문화예술 사절단」 개념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속초예총의 의견 제출 요구해 회의결과 동의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사진 강좌 개강



속초사진작가협회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 속초개인택시조합 3층 회의실에서 제3기 무료 사진강좌를 개강했다. 속초사진작가협회는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에 따라 카메라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사진문화 확산을 위해 3년째 사진강좌를 열고 있다. 올해는 김성학 지부장과 최희재 사업간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오후 5시까지 디지털카메라의 전반적인 사용법과 사진촬영 후 보정을 위한 포토샵 사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 제33회 강원연극제 출전



제33회 강원연극제에 출전한 속초연극협회 연합팀이 4월 9일(토) 저녁 7시30분 횡성문화회관에서 출품작 「카운터포인트- 소현세자의 흔적과 표적」을 열연했다. 속초연합팀은 단체 대상을 수상해 6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강원도대표로 출전권도 획득했다.

■ 문인협회원 박명자 허난설헌 문학상 수상

속초문인협회 박명자 회원이 지난 4월 23일(토) 허난설헌문학상을 수상했다.

■ 속초종합예술제 5월 9일부터 개최

「모두가 함께하는 속초예술」이란 주제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2



일까지 제51회 강원 도민체육대회를 기념해 열린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는 처음으로 야외광장에서 매머드한 무대를 조성하고 야간공연에 어울리는 조명을 설치해 공연다운 공연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속초국악협회 대포공연

속초국악협회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포항에서 열린 「바다별빛 내리는 대포야 사랑해」 공연에 참가해 모듬북, 사물놀이 등을 연주, 대포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 2016년도 5월 회장단 회의



2016년도 5월 회장단 회의가 19일(목)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은 제51회 강원 도민체전 기념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준비상황 점검이었다. 5월 9일(월)부터 6월 17일(금)까지 엑스포상징탑 광장과 문화회관대강당, 전시실 등에서 펼쳐기로 최종 확정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교동주민자치센터 디카사진반 입회점수 인준

속초사진작가협회(지부장 김성학)가 8년째 운영하고 있는 교동주민자치센터 디카사진강좌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강좌로 인준 받았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공모전 수상 및 소정의 사진강좌를 수료해 총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35점 이상은 준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속초사진작가협회는 지난 5월 19일 열린 한국사진작가협회 제2차 이사회에서 교동주민자치센터 디카사진강좌가 입회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는 강좌로 인준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교동

주민자치센터 디카사진강좌를 처음 개설했으며 올해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8기생이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김성학지부장이 강사, 정규 사무국장이 보조강사를 맡아 디카 이론교육과 출사를 함께 진행했다.

■ 긴급 회장단 회의

속초예총 긴급 회장단 회의가 5월 20일(금) 오전 11시 30분 그리운 보리밭에서 열렸다. 정봉재 회장, 신오일 부회장, 김명길 부회장, 김향숙(문인), 고주리(미술), 남상진(연극), 김정희(사진작가), 양숙희, 조성희, 권오돈(무용), 이수영 등 11명이 참석해 강원도 제1차 추경예산과 관련해 김성근 도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속초예총 예산 도비 지원을 협의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춘계 친선체육대회

속초사진작가협회는 지난 5월 21일 양양송이 조각공원에서 사진작가협회 임원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춘계 친선체육대회를 통해 친선을 도모했다.

■ 속초문협 및 갈매 순회 시화전 개최

속초문인협회와 갈매 순회 시화전이 지난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시립도서관, 엑스포 광장, 속초의료원, 속초문화회관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 속초연극협회 연합 팀,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출전



속초연극협회 연합 팀이 6월 7일(화) 저녁 7시30분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카운터포인트- 소현세자의 흔적과 표적」으로 참가해 단체 금상과 무대예술상(김일태)을 수상했다. 속초연극협회 연합팀은 지난 4월 9일 횡성문예회관에서 열린 제33회 강원연극제에서 단체 대상을 수상해 강원도대표로 출전한 것이다.

■ 속초무용협회, 「2016우리 춤 속으로」 공연

속초무용협회는 지난 6월 12일(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6우리 춤 속으로」 공연을 열었다. 지역사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무용예술을 익혀온 사회인들의 무용축제의 장이었고 또한 다양성이 배어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무용예술의 참 맛을 연출했



으며 한국무용예술의 우수성과 흥의 정서를 담아 지역주민들이 무용예술에 대한 관심과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무용예술인들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 성황을 이뤘다.

■ 최명선 회원 제2시집 『말랑한 경문』 출간

속초문인협회 최명선 회원이 6월 15일(수) 두 번째 시집 『말랑한 경문』(글나무)을 출간했다. 지난 2006년 첫 시집 <기억, 그 따뜻하고 쓰린>을 낸지 꼭 10년만이다. 시집은 제1부 말랑한 경문, 2부 상처의 안쪽, 3부 만남의 수사학, 4부 가을 여자 등 4부로 구성됐으며, 모두 75편의 시를 담았다. 최명선 시인은 2004년 문학세계로 등단했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 설악문우회 갈매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훈춘 제1차 오리엔테이션 실시

속초예총은 6월 24일(금)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훈춘 제1차 오리엔테이션과 6월 28일(화)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훈춘 제2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오국성, 엄창운 회원 특별상, 동상 수상

속초사진작가협회 오국성 회원이 7월1일 ~ 3일 제3회 인제바퀴축제 전국촬영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엄창운 회원은 동상을 수상했다.

■ 극단 청봉, 중국 훈춘공연 다녀와

극단 청봉은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훈춘문화관에서 「중국 동포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마술사와 함께하는 연극 공연」을 벌였다. 연출은 김일태, 음악감독은 남상진이 맡았고 마술사는 도깨비, 박유덕은 나무꾼 역, 김수정은 도깨비 역, 남희영은 도깨비 역, 손미애씨는 도깨비 역으로 출연.



■ 극단 파·람·불, 춘천연극제 초청공연 참가

극단 파·람·불은 지난 7월 4일~5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춘천연극제 초청공연에 「전명출 평전」(백하룡 작, 변유정연출)으로 참가했다.

■ 속초미술협회 백종숙 회원

제3회 크리에이티브 오렌지 아트페어 참여



속초예총 속초미술협회 백종숙 회원이 7월 16일~8월 14일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크리에이티브 COAF 오렌지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바다에美치다'란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갤러리 중심이 아닌 순수 작가 중심의 아트페어였다. 참여작가 200명의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 총 3천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다.

■ 2016년도 7월 회장단 회의

2016년도 7월 회장단 회의가 18일(월)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와 제2회 훈춘청소년 문예대회 결과보고 및 2016년 후원금 사용 등 이사회 안건을 조율함.

■ 속초예총 2016년 제2차 이사회의

속초예총 2016년 제2차 이사회의가 지난 7월 25일(월) 오후 6시 속초문화원2층 문화사랑방에서 열렸다. 재적이사 32명중 25명 참석(참석 17명, 위임 8명)으로 개회해 보고사항으로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결과 보고, 제2회 훈춘청소년 문예대회 결과보고를, 심의사항으로 2016년 후원금 사용(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다. 기타사항으로 각 협회의 정관과 회원명부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고



9월초까지 각 협회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사무국에 제출해줄 것을 공지하고 폐회했다.

■ 김향숙 회원 제1시집 『따뜻한 간격』 출간

속초문인협회 김향숙 회원이 7월 25일(월) 첫 시집 『따뜻한 간격』(글나무)을 출간했다. 크게 3부로 나뉜 이 시집은 김향숙 시인의 시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바람은 향기로웠다고, 사과 씨, 식탁 위의 브로콜리, 달빛 신호등, 누가 이사를 간다, 첫눈 여행, 편지, 노을 시간, 길은 자란다 등 주옥같은 시편을 담고 있다. 김향숙 시인은 지난 2003년 계간 〈시 현실〉로 등단해 한국문인협회 회원, 강원문인협회 회원, 설악문우회 갈매 동인, 고성문학 동인이다.

■ 극단 파·람·불, 방방곡곡 문화사업 공연



극단 파·람·불은 지난 7월 27일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방방곡곡 문화사업 공연의 일환으로 「전명출 평전」(백하룡 작, 변유정 연출)을 공연했다.

「전명출 평전」은 제32회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울산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해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전명출 평전」은 영농후계자였던 30세 청년 전명출이 가난 때문에 마늘 50점을 훔치려다 마을 사람들에게 멍석말이를 당하자 아내 순님과 야반도주한 뒤, 갇은 고초를 겪는 모습을 그려냈다. 삼청교육대, IMF 금융위기, 4대강 개발 등 지난 30여 년간 한국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전명출의 일대기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키며 그의 타락을 보여줬다.

■ 제31회 강원미술상 수상 박동국 개인전

제31회 강원미술상 수상 박동국 개인전이 8월 2일(화) ~ 19일(금) 한국은행 강원본부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 강원미술상 수상 기념으로 마련된 기획초대전. 전시 주제는 「자작 · 하얀 영혼의 실루엣」이었다.



강원미술상 수상 기념 기획초대전
박동국 수채화展
- 자작 · 하얀 영혼의 실루엣 -
2016. 8. 2(화) ~ 8. 19(금)
(Opening 8월 2일 오후 5시 ~ 8월 3일 오후 5시)
한국은행 강원본부 특별전시실

■ 극단 청봉, 유정충 선장 퍼포먼스 공연



극단 청봉은 지난 8월 13~14일 청호동 갯배 선착장에서 '바다사나이 살신성인의 별로 뜨다'란 의인 유정충 선장 퍼포먼스를 공연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는 유정충 선장의 고귀한 행적을 기리고, 세월호 참사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속초항 소속 하나호 유정충 선장은 지난 90년 3월 1일 선원 21명을 태우고 조업 중 강한 파도를 만나 배가 침몰하자 선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본인은 배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

■ 2016년도 8월 회장단 회의



2016년도 8월 회장단 회의가 22일(월) 오후 5시 속초예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은 속초예술제 16호 편집회의와 2018 평

창 동계올림픽 사전홍보 문화예술행사 사업 설명, 2016년도 속초예총 단합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 속초미협 임원 양양미협전 개전식 참석



고주리, 김병택, 박혜정씨 등 속초미협 임원 3명은 지난 8월 23일(화)~26일(금)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제9회 양양미협 회원전 「양양600년의 꿈」 개전식에 참석했다.

■ 속초문협 및 갈매 회원 정선 아라리촌 문학기행

속초문인협회와 갈매 회원들은 지난 8월 27일(토) 정선 아라리촌에 문학기행을 가 회원 간 친목과 작품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5인5색 사진전시展



5인5색 시사진(포토포엠), 사진 전시展이 9월 1일(11월 12일까지) 속초시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임흥빈 속초사진작가협회 부지부장과 정규 사무국장, 고명녀, 최수홍 회원이 참여했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최수홍, 정규, 김시권 회원 우수작, 가작 수상
최수홍 회원과 정규 회원이 9월 1일 ~ 20일 2016년 속초관광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김시권 회원이 9월 1일 ~ 10월 20일 제9회 강릉관광사진공모전에서 가작을 수상했다.

■ 2016년도 속초예총 회원 단합대회

2016년도 속초예총 회원 단합대회가 지난 9월 3일(토) 오후 2시 속초문화회관 별관 옆 광장에서 기관단체장 및 속초예총 임원과 회



원 100여명이 참석해 열렸다. 폭우가 쏟아져 게임 등 친목도모용 놀이는 하지 못하고 먹거리를 통한 회원 간 단합행사로 치렀다.

■ 속초미술협회 김동하 前지부장 별세

속초미술협회 김동하 前지부장이 지난 9월 4일(일) 새벽 지병으로 타계했다. 고인은 속초미협 지부장을 역임했고 한중서화부흥협회 이사, 운영위원, 심사위원, 추사 김정희 추모 전국회화대회 심사위원, 강원미술(서예)대전 운영위원장(2013, 2014년), 강원도서예전람회 운영위원(2012, 2014년), 심사위원(2013년),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심사위원(2011, 2014년)을 역임했고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와 강원도미협 서예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작고했다. 속초에서 80년대부터 속초서예·한문학원(일연서루)을 운영했다.

■ 2016년도 강원예술인대회



2016년도 강원예술인대회가 지난 9월 9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속초예총 속초사진작가협회 김성학 지부장이



강원도예총회장 공로패를, 속초연극협회 김일태 부지부장과 속초예총 홍혜진 사무과장이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 강원도미술협회전 회원참여



속초미술협회 고주리, 김병택, 박혜정, 박동국, 정봉재, 김봉수, 이덕우,故김동하 회원이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도미술협회전에 참여했다.

■ 속초연극협회,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페스티벌 초청공연 참가

속초연극협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송홀에서 연극 「카운터포인트」 (이반/작, 변유정/연출)로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페스티벌 초청공연에 참가했다. 지난 6월 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해 단체 금상을 수상해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페스티벌에 초청돼 공연한 것이다.

■ 속초사진작가협회 엄창운 회원 동상 수상

속초사진작가협회 엄창운 회원이 9월 19일 ~ 10월 14일 제5회 영월관광사진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 속초무용협회, 중국 산시성 국제문화관광 페스티벌 공연 초청받아

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양속희 무용단은 지난 9월 23일 멕시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태리, 이집트, 터키, 한



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바하마, 스페인 등 세계 14개국이 참가한 중국 산시성 국제문화관광 페스티벌에 초대돼 메인 공연과 프린지 공연에서 한국무용 공연을 펼쳤다. 공연 후에는 6차선 도로 중 4개 차선을 이용하는 퍼레이드에 3만명의 관중이 관람했고 한국공연단과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도로로 몰려들어 공안(경찰)들이 통제하기 힘들만큼 한류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 제19회 속초문협 및 갈매 동인 설악산 숲속 시화전



속초문인협회와 갈매 동인은 지난 9월 24일 ~ 25일 설악산에서 제51회 설악문화제 연계사업으로 제19회 설악산 숲속 시화전을 열었고 10월 7일 ~ 9일엔 설악로데오 거리에서 시화전을 열었다.

■ 연극 옹고집전 열려

연극 옹고집전이 지난 10월 11일(화) 저녁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속초예총 국제교류단장인 장규호 명예회장이 출연했다.



강원원로 연극인들이 주인공인 옹고집전은 지난해에 이어 문체부로부터 2년 연속 <원로예술인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앙코르 공연을 했다. 옹고집전은 부자지만 고집 세고 욕심 많은 옹고집의 이야기를 다뤘다.

■ 강원미술대전 추천 초대작가전 회원 참여

속초미술협회 고주리, 박동국, 이덕우, 이철윤 회원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미술대전 추천 초대작가전에 참여했다.

■ 속초예총, 2016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 제전 참가



속초예총은 10월 28일~29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에 참가했다. 29일(토) 오후 1시~3시 갯골생태공원 내 교육장에서 열린 예총회장 정책토론회에서 속초예총 정봉재 회장은 문화두레의 민간참여와 운영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여예총 회장 소개에 이어 시흥시립전통예술

단의 해금 및 신디사이저 연주가 있었고 문화기획학교 조정국 이사장의 주제발표와 예총회장들의 중점토론 등이 있었다. 특히 김윤식 시흥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시흥에서 문화원장과 예총회장, 사무국장 등이 모여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민간단체 주도의 문화두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양숙희무용단 정기공연



양숙희무용단 정기공연 「춤! 단오풍정」이 지난 10월 29일 저녁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무용으로 단오 풍경을 표현하는 아주 이색적인 무대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 속초예총 송년예술제 예산배분 회의

송년예술제 예산배분 회의가 지난 10월 31일(월) 오전 11시30분 그리운 보리밭에서 문인, 미술, 음악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극단 파·람·불, 중·고 폭력예방 교육연극 공연

극단 파·람·불은 11월부터 ~ 12월까지 춘천과 원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연극 「미래의 장례식」을 4회(원주 영서고, 원주고, 춘천여고, 춘천 소양고)에 걸쳐 실시했다.

■ 속초무용협회, 러시아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속초무용협회는 지난 11월 2일~6일까지 속초시를 관광차 방문한

러시아 청소년 40여명과 러시아 노총 관계자들에게 5일 오전 10시 속초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한국 전통무용과 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 속초음악협회, 음악과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



속초예총 속초음악협회는 지난 11월 12일(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음악과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을 열었다. 바리톤 이규성 동국대대학원 교수가 강의와 노래를 곁들여 많은 청중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 제2회 굿모닝 바다사랑 속초전국사진촬영대회 및 전국사진 강좌 개최



제2회 굿모닝 바다사랑 속초전국사진촬영대회가 11월 19일(토) 오전 5시부터 설악대교 밑 방파제 인근에서 열려 1차 촬영대회 후 개회식이 아침 8시에 이병선 속초시장, 김종희 속초시의회 의장, 정



봉재 속초예총회장과 전국에서 참가한 2백여명의 사진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속초도루묵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아침식사 후 오전 10시부터 엑스포장 분수대 뒤 요트 계류장에서 제2차 촬영대회를 연 후 오후 1시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전국사진 강좌를 개최했다.

■ 속초연극협회, 제2회 강원 어린이연극축제



제2회 강원 어린이연극축제가 11월 19일(토) ~ 21일(월)까지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차례 속초시 관내 강원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도내 8개 학교가 참가했고 속초연극협회와 강원도연극협회가 주관했다. 단체상으로 대청봉상은 인제초, 속초 교동초, 주문진초등학교가 차지했으며 중청봉상은 명주초, 철원 청양초, 정선 갈래초등학교가, 소청봉상은 고성 도학초등학교가, 권금성상은 용대초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개인상으로 지도교사상(교육감 표창장)은 인제초등학교 박은영 선생님이, 반달곰상은 인제초등학교 홍서영양, 산양상은 청양초등학교 김태희, 도학초등학교 김승희, 속초 교동초등학교 김재은, 용대초등학교 전해인, 명주초등학교 최예림, 주문진초등학교 김유성, 갈래초등학교 박주언, 주문진초등학교 박윤서양이 수상했다.

■ 2016년도 11월 회장단 회의

2016년도 11월 회장단 회의가 22일(화) 오전 11시 30분 그리운 보리밭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은 속초예술16호 출간기념회와 속초예총 후원의 밤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속초연예예술인협회, 2016속초연예예술인의 밤 개최

속초연예예술인협회가 11월 23일(수) 저녁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설악1세대 음악인 색소폰 한기학 고회 기념 연주회」 겸 2016속초연예예술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500여 관객이 참석



한 이날 행사엔 두드리팀의 타악 퍼포먼스와 설악메아리 합창단 공연에 이어 김창호의 통기타, 김태익의 하모니카, 윤형준의 오카리나, 이은미의 해금, 이은영의 우쿨렐레, 박재근의 콘트라베이스가 한 무대에서 화음을 선사했고 이재환과 송태한, 주은정의 통기타와 보컬, 이명재의 색소폰 클럽, 김현미의 트로트, 한기학의 색소폰과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게스트로 여성댄스 5인조 그룹 「블랙 퀸」과 17인조 「노신사 밴드」 공연에 이어 소프라노 김현정씨가 특별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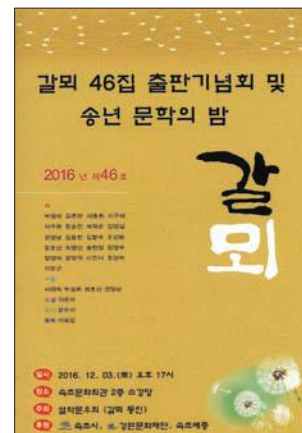
■ 속초연극협회장 남상진, 극단 청봉 남희영, 강원연극예술상 수상

속초연극협회 남상진 지부장이 지난 11월 27일 제33회 강원연극예술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상진 지부장은 제33회 강원연극제에서 속초지역 3개 극단(극단 소울씨어터·극단 청봉·극단 파·람·불) 연합출전에 중추 역할을 해 강원연극제 대상과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강원 연극의 저력을 전국에 알린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극단 청봉의 남희영씨도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반 속초예총 명예회장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 2017년도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설명회

2017년도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설명회가 12월 3일(토) 오전 10시 속초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화공간에서 열렸다. 2017년 공모형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 2016년도 송년예술제



〈2016 사랑 나눔 자선미술전〉이 속초미술협회 주관으로 12월 3일 오후 3시 개전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고 〈갈매46집 출판기념회 및 송년 시낭송회〉도 이날 오후 5시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속초사진작가협회 송년회〉행사도 이날 저녁 열렸으며 〈2016 음악과 함께 떠나는 겨울여행〉이 속초음악협회 주관으로 12월 15일 저녁 7시 30분 바리톤 이규성 교수 등 출연진들이 출연해 설악문화센터에서 열렸다.

■ 〈속초예술〉지 16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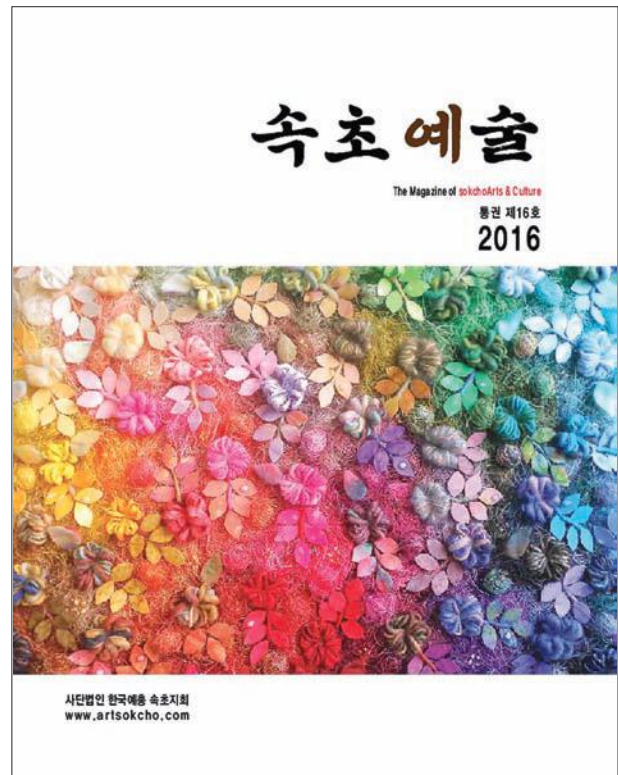
속초예총의 연간지 〈속초예술〉지 16호가 발간됐다. 문인협회 회원들의 시와 수필, 미술협회 회원들의 지상갤러리(작가노트/미술이야기),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사진 지상전(작가노트)과 커버스토리로 제27회 속초종합예술제 결산, 문화진흥기금과 관련한 속초예총회장, 속초시장, 속초시의회 의장의 제언, 예인탐방, 협회 회원들의 특별기고, 김춘만 문인협회 고문의 〈김향숙 시인 서평〉, 제2회 훈춘청소년문예대회 결산, 설악주부/학생백일장 장원작품 소개, 설악문화제 속초예총 부스, 예술로 보는 2016년 속초예총, 협회 및 회원 동정 등이 실렸다.

■ 속초예술16호 출간기념회 및 속초예총 후원의 밤

속초예술16호 출간기념회 및 속초예총 후원의 밤 행사가 12월 13일(화) 저녁 6시 30분 아남프라자 19층 대연회장에서 기관단체장 및 속초예총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속초예총 예술인들이 공연을 벌여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 극단 청봉,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극단 청봉은 12월 22일(목) 오후 2시 속초노인복지회관에서 속초시의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의 일환으로 연극 「결혼」 (이강백 작)을 무대에 올려 공연했다.



■ 극단 파·람·불과 극단 소울시어터, 합동 워크숍 공연

극단 파·람·불과 극단 소울시어터는 12월 마지막 주 3일 동안 극단 파·람·불 사무실에서 합동 워크숍으로 연극 「오르골」을 공연했다.

■ 극단 파·람·불, 런갯마당과 합동공연

극단 파·람·불은 12월 17일 속초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런갯마당과 음악극 「원포귀범」을 합동 공연했다.

속초예술

〈한국예총 속초지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예총 속초지회〉 행사에 항상 관심을 주시는 속초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예술인단체인 〈한국예총 속초지회〉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상상력을 일으킴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속초예술을 사랑합니다. 속초예총을 후원합니다.

- 예술은 우리를 숨 쉬게 합니다.
- 예술은 창의성과 학습능력을 신장시킵니다.
- 예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 예술은 행복과 건강한 노후를 이끎니다.
- 예술은 우리사회를 통합시킵니다.
- 예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 예술은 도시 브랜드를 높입니다.



초원환경산업(주)
대표 정 연 석



속초한의사회



HYUNDAI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속초금강대리점/대표
최 효 섭
010-5375-0915

속초시 동해대로 4087(조양동)
TEL. (033) 637-3100
FAX. (033) 637-3102
E-mail. chs063@hanmail.net

생각이 따뜻한 책방
문/우/당/서/림

대표 이민호



속초시 중앙로45 ☎033-635-8055-6



강원도속초의료원

[http:// www.sokchomc.co.kr](http://www.sokchomc.co.kr)

보건복지부시행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관리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질향상)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인증기간 : 2016. 8. 8. ~ 2020. 8. 7.

속초농협클린주유소

(속초농협하나로마트 이용고객 세차비 할인권)

5만원이상 물품고객 세차비 - 1,500원 (할인 2,500원)

8만원이상 물품고객 세차비 - **공짜!!!** (할인 4,000원)

(물품영수증 지참 필수)



정품·정량 난방유·면세유 신속배달 **033-636-1680**

속초시의사회

회 장 김 종 욱 (김소아과의원)

총 무 박 정 민 (박정민통증의학과)



판유리, P,V,C창호 속초대리점



LG하우시스 지인대리점



|주|두산GSP산업

대표이사

임 동 환

강원도 속초시 대포 제2농공단지 947-1번지

tel 033) 633-9933, 635-9933

fax 033) 635-6666

e-mail sokcho5004@hanmail.net

• 유리 · 창호 시공 기능인 자격증 보유 • 유리 · 창호 공사 시공업 면허 보유

祝 『속초예술16호』 出刊



속초예총 회원여러분!

丙申年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丁酉년도

속초예술 발전을 위해

龍騰虎躍(용등호약)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대보이엔씨 대표 박성수

내 집안의 걱정 요리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로
당신의 걱정을 줄이세요

무배당 가정종합보험리치하우스

가정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 속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걱정 없이 보장해드립니다

내 사업장의 안전 해결사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든든한 준비로
당신의 안전을 지키세요

무배당 내사업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

오직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가까운 전국 농협과 농협손해보험 지점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
NH농협손해보험

※상품가입 전 직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4271호(2016.9.12)

www.nhfire.co.kr
1644 9000

최강2020 농협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www.nonghyup.com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농심을 품고
협동조합이념을 가슴에 품고
농업인과 고객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농민 속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열정과 의지로
농민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곁으로
국민과의 공간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NH 농협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지 부 장 **박 종 훈**
농정단장 **천 춘 욱**

DH (주) 동해산업



공장명(회사)	(주)동해산업	대표자	윤신남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193-19	전화	033) 672-0880~2 033) 671-3589
		팩스	033) 672-0885
종목	레미콘	종류 및 등급	보통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아스콘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골 재		콘크리트용 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단입도(SMA용) 골재 등

공장규모	30685㎡	생산능력 (년)	336,000㎥ (레미콘)
제조시설 (레미콘)	210㎥/h		512,000㎥ (아스콘)
제조시설 (아스콘)	160t/h×2		
골 재	150t/h		240,000㎥ (골 재)

대표 **윤 신 남**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193-19
TEL. 033) 672-0880
FAX. 033) 672-0885
Mobile. 010-8796-4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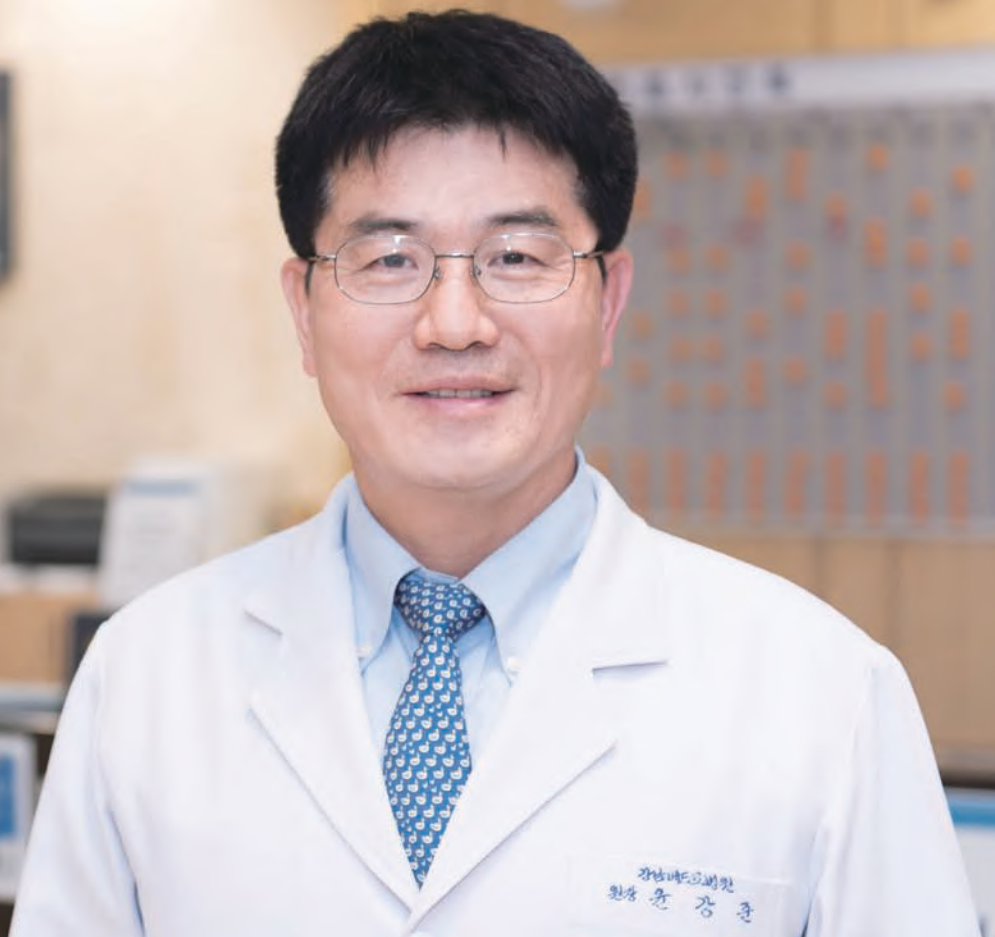
『속초예술』 제16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향토문화예술인들이 회원인 한국예총 속초지회에서
발행하는 『속초예술』 제16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원합니다.



(재)속초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박 충 근

Since 1992
강남베드로병원



머리, 허리, 관절 아플때?

Since 1992
강남베드로병원
따뜻한 치유, 진정한 쾌유



진료내용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디스크비수술
척추관협착증	인공디스크치환술	통증치료
퇴행성관절염	오십견	수지접합
자궁근종비수술	임신 / 출산	모나리자터치
안면경련	중풍/치매예방검진	종합건강검진
눈밑떨림	갑상선암	
성체줄기세포치료	전립선암 하이푸	

특화클리닉

척추클리닉	관절클리닉
수지접합클리닉	하이푸클리닉
안면경련클리닉	전립선클리닉
중풍클리닉	분만클리닉
통증클리닉	출기세포클리닉
갑상선암클리닉	



www.goodspine.org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2633 양재역 4번출구

상담
예약

건강검진지정병원
1544-7522